1. 다음 유적과 유물을 만들었던 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 [1점]

① 강가에서 막집을 짓고 살았다.
② 농사를 처음으로 짓기 시작하였다.
③ 철제 무기와 농기구가 널리 사용되었다.
④ 구릉 위에 취락을 이루고 방어 시설을 설치하였다.
⑤ 유력한 족장을 왕으로 추대하여 연맹 왕국을 형성하였다.

정답: ④

* 청동기 시대 사회상

제시된 자료는 돌널무덤(석관묘)과 비파형 동검(요녕식동검)이다

청동기 시대의 유적은 중국의 요령성, 길림성 지방을 포함하는 만주 지역과 한반도에 걸쳐 널리 분포되어 있다. 이 시기의 전형적인 유물로는 반달 돌칼, 바퀴날 도끼, 홈자귀 등의 석기와 비파형 동검, 거친무늬 거울 등의 청동기, 그리고 미송리식 토기, 민무늬 토기, 붉은 간토기 등의 토기가 있다. 이들 유물은 청동기 시대의 집터를 비롯하여 고인돌, 돌널무덤, 돌무지 무덤 등에서 나오고 있다

① 동굴이나 강가에 막집의 주거형태는 구석기(뗀석기)시대이다. 청동기시대는 대체로 직사각형의 움집이며 점차 지상 가옥으로 바뀌어 갔다. 움집 중앙에 있던 화덕은 한쪽 벽으로 옮겨지고, 저장 구덩도 따로 설치하거나 한쪽 벽면을 밖으로 돌출시켜 만들었다. 창고와 같은 독립된 저장 시설을 집밖에 만들기도 하였고, 움집을 세우는 데에 주춧돌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② 농경은 신석기시대에 이미 처음 등장하였다(조.피.수수). 청동기에는 벼농사가 처음 시작되었다

③ 철제 기구는는 철기시대에나 가능

④ 청동기시대는 강가나 해안가에 거주하던 신석기시대와는 달리 내륙의 야산 구릉지대에도 거주하며 배산임수의 입지와 주축돌을 사용한 흔적이 있다

⑤ 연맹왕국이 나타나는 시기는 철기시대 이후이다. 청동기시대에는 가장 빨라야 군장국가(고조선) 형태이다

2. 밑줄 그은 '그'가 건국한 나라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 그는 드디어 무리를 이끌고 동쪽 계루의 옛 땅으로 들어가 동모산을 거점으로 하여 성을 쌓고 거주하였다. 그는 용맹하고 병사 다루기를 잘하였으므로, 말갈의 무리와 고구려의 남은 무리가 점차 그에게 들어갔다. -「구당서」-

〈보 기〉

ㄱ. 장문휴의 수군이 당의 산둥 지방을 공격하였다.
ㄴ. 서해 항로를 개척하여 요서 지방으로 진출하였다.
ㄷ. 신라와는 상설 교통로를 개설하여 대립을 해소하려 하였다.
ㄹ. 3세기 말에 선비족의 침입을 받아 세력이 크게 쇠퇴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②

* 발해의 역사

보기의 자료에 나오는 그는 발해를 건국한 대조영이다.

㉠ 발해 2대왕 무왕 때 장문휴를 통하여 당의 산둥성(등주)를 공격하였다(732)

㉡ 발해의 영역은 옛 고구려의 영토에 비해서 약간 동쪽으로 취우쳐져 요동, 만주지역과 연해주(현 연해주)는 포함되지만 요서지역은 진출하지 못했다.

㉢ 신라와는 친밀한 관계는 아니지만 교류를 하였고 이 교통로를 신라도라 한다.

즉 신라도는 발해의 수도 상경(上京)을 출발하여 동경과 남경을 거쳐 신라로 가던 교통로로서 오늘날의 동해안을 따라 발해와 신라가 통교하였음을 보여준다.

신라도는 대체로 8세기 전반에 개설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양국이 이 교통로를 이용하여 자주 교류한 것은 8세기 후반에서 9세기 전반이다.

㉣ 발해는 10세기 전반 거란족에 의해 멸망당하였고 고구려계 유민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려로 망명해 왔다(예: 태자 대광현). 이에 태조는 이들을 우대하여 민족의 완전한 통합을 꾀하였다. 이로써 고려는 후삼국뿐만 아니라 발해의 고구려계 유민들까지 포함한 민족의 재통일을 이룩하였다.

3. 다음 자료와 관련 있는 초기 국가의 모습으로 옳은 것은? [1점]

> 해마다 5월이면 씨뿌리기를 마치고 귀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떼를 지어 모여서 노래와 춤을 즐기며 술 마시고 노는데 밤낮을 가리지 않는다. 그들의 춤은 수십 명이 모두 일어나 뒤를 따라가며 땅을 밟고 구부렸다 치켜들었다 하면서 손과 발로 서로 장단을 맞추는데, 그 가락과 율동은 중국의 탁무(鐸舞)와 흡사하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

① 수렵 사회의 전통을 반영한 제천 행사를 거행하였다.
② 왕과 신하들이 국동대혈에 모여 함께 제사를 지냈다.
③ 죽은 사람의 뼈를 추려 가족의 공동 목곽에 안치하였다.
④ 천군이 소도에서 농경과 종교에 대한 의례를 주관하였다.
⑤ 다른 부족의 생활권을 침범하면 노비와 우마로 배상하였다.

정답: ④

* 초기 국가 중 삼한에 대하여

삼한에서는 해마다 씨를 뿌리고 난 뒤인 5월의 수릿날과 가을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10월에 계절제를 열어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소국의 일반 사람들은 읍락에 살면서 농업과 수공업의 생산을 담당하였으며, 초가지붕의 반움집이나 귀틀집에서 살았다. 또, 공동체적인 전통을 보여주는 두레 조직을 통하여 여러 가지 공동 작업을 하였다.

삼한에는 정치적 지배자 외에 제사장인 천군이 있었다. 그리고 신성 지역으로 소도가 있었는데, 이 곳에서 천군은 농경과 종교에 대한 의례를 주관하였다. 천군이 주관하는 소도는 군장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죄인이라도 도망을 하여 이 곳에 숨으면 잡아가지 못하였다. 이러한 제사장의 존재에서 원시 신앙의 변화와 제정의 분리를 엿볼 수 있다.

① 부여의 풍속에는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이것은 수렵 사회의 전통을 보여주는 것으로 12월에 열렸다.

② 고구려에서는 10월에는 추수감사제인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성대하게 치르고, 아울러 왕과 신하들이 국동대혈에 모여 함께 제사를 지냈다.

③ 옥저에서는 가족이 죽으면 시체를 가매장하였다가 나중에 그 뼈를 추려서 가족 공동의 무덤인 커다란 목곽에 안치하였다.

⑤ 동예에서는 각 부족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게 하였다. 만약 다른 부족의 생활권을 침범하면 책화라 하여 노비와 소, 말로 변상하게 하였다.(씨족 사회의 폐쇄적 유습)

4. 다음 자료와 관련된 시기의 상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 자장 법사가 중국의 태화 연못가를 지나는데 문득 신인(神人)이 나타나서 묻기를, "어떻게 여기에 왔소?"라고 하니, 대답하기를 "보리(菩提)를 구하고자 합니다."라고 하였다. 신인이 절하고 또 묻기를, "그대 나라에 무슨 어려움이 있소?"라고 하니, 자장이 대답하기를, "우리나라는 북쪽으로 말갈에 이어졌고, 남쪽으로는 왜에 인접되었고,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가 번갈아 변경을 침범하는 등 이웃에 구적(寇賊)이 횡행하니, 이것이 백성들의 걱정입니다."라고 하였다.
>
> -「삼국유사」 탑상 -

〈 보 기 〉

ㄱ. 고구려는 당군의 침략을 안시성에서 물리쳤다.
ㄴ. 신라는 고구려와 동맹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ㄷ. 백제는 국호를 남부여로 고치며 국가 중흥을 꾀하였다.
ㄹ. 가야는 신라와 결혼 동맹을 맺어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려 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①

* 7세기 전반의 삼국의 상황

제시된 자료는 신라 자장 법사의 황룡사 9층탑 건의와 관련된 일화로서 선덕여왕 당시 고구려, 백제 등에 시달리던 당시 상황이 드러나 있다.

고구려가 수. 당의 침략을 막아 내는 동안 신라는 백제와 대결하고 있었다. 신라는 고구려와 동맹을 시도였으나 실패하였고, 그 후 당과 연합군을 결성하여 백제를 공격하였다.(여제 동맹↔나당 연합)

자장(590~658): 당에 유학하여 계율종을 도입하였고, 분황사.황룡사 주지를 거쳤고 선덕여왕 때 황룡사 9층탑 건립을 건의하였으며(643) 부산에 통도사를 걸립하였다. 무엇보다도 친당 인사로 당 연호를 사용케 하였으며 중국식 관복을 입게 하였다

㉠ 고구려의 대당 전쟁 중 안시성 승리(645)

㉡ 신라는 대야성 함락(642) 후 고구려와 동맹을 시도였으나 실패하였다(김춘추 VS 연개소문)

㉢ 사비 천도는 백제 성왕의 업적이다(538)

㉣ 6세기 초에 대가야는 백제, 신라와 세력을 다투게 되었고, 신라와 결혼동맹을 맺어서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려 하였다(522: 대가야 이뇌왕과 신라 법흥왕).

5. 다음 유물들이 발견된 발해 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① 문왕의 딸인 정효 공주 묘이다.
② 중국 길림성 화룡현 용두산에 위치하고 있다.
③ 힘찬 기상을 표현한 돌사자상이 출토되었다.
④ 묘지명에 '황상(皇上)'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⑤ 고구려 계통의 모줄임 천장 구조를 계승하고 있다.

정답: ③

* 발해 정효 공주 묘(길림성 화룡현 용두산 고분): 벽돌식 무덤. 묘지(墓誌)와 벽화가 발굴되었다

왼쪽 그림: 벽화, 오른쪽 그림: 묘지(墓誌)

① 문왕의 넷째 딸인 정효 공주 묘이다. 둘째 딸인 정혜공주 묘(굴식 돌방 무덤)도 따로 있다

② 정효공주 묘는 길림성 화룡현 용두산 고분에 있고, 정혜 공주 묘는 길림성 돈화현 육정산 고분군에 있다

③ 돌사자상은 정혜 공주 묘 입구에 있다

④ 묘지(墓誌)에는 문왕의 존호가 '대흥보력효감금륜성법대왕(大興寶曆孝感金輪聖法大王)'으로 되어 있어, 문왕이 불교의 이상적인 제왕인 전륜성왕(轉輪聖王)을 자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발해가 그만큼 세력이 강한 국가였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또 "황상은 조회를 파하고 크게 슬퍼하여(皇上罷朝興慟)"라는 글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발해에서는 문왕을 중국의 황제와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했음을 알 수 있다.

⑤ 정혜.정효 공주 묘 공히 고구려 계통의 모줄임 천장구조이다

6. 다음 글의 내용과 관련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 중생들이 …… 비처럼 흩뿌리고 쓸데없는 공론이 구름처럼 흩어졌다. 어떤 사람은 내가 옳고 다른 사람이 그르다 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내가 그렇고 다른 사람이 그렇지 않다 하여, 말이 한도 끝도 없게 되었다. …… 융통하여 서술하고는 그 이름을 십문화쟁론(十門和諍論)이라 하였다.
>
> – 서당화상비문 –

〈보 기〉

ㄱ. 아미타 신앙을 전도하며 불교의 대중화에 힘썼다.
ㄴ. 해동 화엄종을 창시하고 많은 제자를 양성하였다.
ㄷ. 다른 종파들과의 사상적 대립을 융화하려고 하였다.
ㄹ. 인도 등지에 관한 기록을 적은 왕오천축국전을 남겼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②

* 원효(617~686)의 사상

고대 불교를 대표하는 원효는 불교의 사상적 이해 기준을 확립하였다. 그는 당시의 거의 모든 불교 서적을 폭넓게 이해하고 대승기신론소와 금강삼매경론 등을 저술하였다. 원효는 모든 것이 한마음에서 나온다는 일심 사상을 바탕으로, 다른 종파들과 사상적 대립을 조화시키고 분파 의식을 극복하려는 십문화쟁론을 지었다.
또한 극락에 가고자 하는 아미타 신앙을 자신이 직접 전도하며 불교 대중화의 길을 열었다

㉡ 의상(625~702)은 화엄일승법계도를 저술하여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으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화엄 사상을 정립하였다. 의상은 화엄 사상을 바탕으로 교단을 형성하여 많은 제자를 양성하고 부석사를 비롯한 여러 사원을 건립하여 불교 문화의 폭을 확대하였다.
또한 화엄 종단에서 아미타 신앙과 함께 현세에서 고난을 구제받고자 하는 관음 신앙을 이끌었다.
㉣ '왕오천축국전'은 혜초의 기행문이다

7. 다음은 신라 역사를 세 시기로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① 상고·중고·하고는 삼국사기의 시기 구분이다.
② 상고 시기에는 신라 고유의 왕 호칭을 사용하였다.
③ 중고 시기에는 불교식 왕명을 사용하였다.
④ 중대에는 태종 무열왕의 직계 후손들이 왕위에 올랐다.
⑤ 하대에는 진골 귀족들의 왕위 쟁탈전이 전개되었다.

정답: ①

* 신라의 시기 구분과 특징

신라는 '삼국사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3기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상대(上代:시조~28대 진덕여왕, BC 57~AD 654)는 원시부족국가·씨족국가를 거쳐 고대국가로 발전하여 골품제도가 확립된 시기이다.

중대(中代:29대 무열왕~36대 혜공왕, 654~780)는 삼국을 통일하고 전제왕권(專制王權)이 확립되어 문화의 황금기를 이룬 시기이다.

하대(下代:37대 선덕왕~56대 경순왕, 780~935)는 골품제도의 붕괴, 족당(族黨)의 형성 및 왕권의 쇠퇴로 호족(豪族)·해상세력이 등장하고 멸망에 이르는 시기이다. 이밖에 29대 무열왕 이전을 삼국시대, 그 이후를 통일신라시대로 크게 구분한다.

반면 승려 출신 일연의 '삼국유사'는
상고(초기-지증왕): 고유 왕명 시대
중고(법흥왕-진덕왕): 불교식 왕명 시대
하고(무열왕-경순왕): 중국식 시호 시대로 구분하였다

① 상고. 중고, 하고의 시기 구분은 삼국유사의 시기 구분이다

8. 다음 비문의 밑줄 그은 '태왕(太王)'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태왕(太王)'이 …… 크게 인민(人民)을 얻어 …… 이리하여 관경(管境)을 순수(巡狩)하면서 민심을 □□하고 노고를 위로하고자 한다. 만일 충성과 신의와 정성이 있고 …… 상(賞)을 더하고 …… 한성(漢城)을 지나는 길에 올라 …… 도인(道人)이 석굴에 살고 있는 것을 보고 …… 돌에 새겨 사(辭)를 기록한다.

① 율령을 반포하여 통치 질서를 확립하였다.
②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였다.
③ 이사부를 보내 우산국(울릉도)을 복속시켰다.
④ 만주 지방에 대한 대규모의 정복 사업을 단행하였다.
⑤ 김흠돌의 모역 사건을 계기로 귀족 세력을 숙청하였다.

정답: ②

* 신라 진흥왕(재위: 540~576)의 업적

자료는 진흥왕 순수비 중 '북한산비'의 비문 내용이다.

신라는 6세기 진흥왕 때에 이르러 내부의 결속을 더욱 강화하고 활발한 정복 활동을 전개하면서 삼국 간의 항쟁을 주도하기 시작하였다. 진흥왕은 국가 발전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 불교 교단을 정비하여 사상적 통합을 도모하였다.

이를 토대로 고구려의 지배 아래에 있던 한강 유역을 빼앗고 함경도 지역으로까지 진출하였으며, 남쪽으로는 고령의 대가야를 정복하여 낙동강 서쪽을 장악하였다. 특히, 한강 유역의 장악은 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전략 거점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황해를 통하여 중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유리한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이는 이후 삼국 경쟁의 주도권을 신라가 장악하는 계기가 되었다.

① 신라의 율령 반포는 법흥왕(514~540) 때이다

③ 이사부를 통한 우산국 정벌은 지증왕(500~514)때이다.

④ 만주에 대한 대대적 정복은 고구려 광개토 대왕(391~412) 때이다.

⑤ 김흠돌 모반을 빌미로 대대적 귀족 숙청 사건은 신라 신문왕(681~692) 때이다

9.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 (가) 에는 제술, 명경 두 과가 있고, …… 잡과가 있다. …… 그 외에도 유일(遺逸)의 천거(薦擧)와 (나) 에 의한 서용(敍用), 성중애마(成衆愛馬)의 서용, 남반(南班)·잡로(雜路)를 통한 승전(陞轉) 등이 있어 관리로 진출하는 길이 하나만은 아니다. -「고려사」 선거지 -

〈 보 기 〉

ㄱ. (가)보다 (나)가 먼저 제도화되었다.
ㄴ. (가)와 (나)를 모두 거친 관리도 있었다.
ㄷ. 백정 농민은 법률상 (가)에 응시할 자격이 없었다.
ㄹ. 문벌 귀족은 (나)를 통해 관직 등용의 특권을 누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④

* 고려의 관리 채용제도: (가)과거제와 (나)음서제

고려의 관리는 과거와 음서를 통하여 등용되었다. 과거는 제술과, 명경과, 잡과로 나뉜다. 제술과는 문학적 재능과 정책 등을 시험하고, 명경과는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 능력을 시험하여 문신을 뽑았다.

법제적으로 양인 이상은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으나 실제로 제술과나 명경과에는 주로 귀족과 향리의 자제들이 응시하였고, 백정 농민은 주로 잡과에 응시하였다.

과거에 합격한 사람은 시험관인 좌주와의 결속을 강화하여 그들의 도움으로 쉽게 관직에 진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과거를 통한 관리의 등용은 신분을 중시하던 고대 사회와는 달리 유교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등용하였다는 점에서 능력이 중시되었음을 뜻한다.

한편, 공신과 종실의 자손, 5품 이상의 고위 관료의 자손 등은 과거를 거치지 않고도 관료가 될 수 있는 음서의 혜택을 받아 관료로서의 지위를 세습하기도 하였다. 이는 고려의 관료 체제가 귀족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 997년(고려 목종 즉위)에 문무관 5품 이상관의 아들에게 음직을 주도록 하는 음서제가 최초로 생겨났고, 과거제는 958년(광종)에 처음 실시하였다.

㉡ 능력이 있다면 음서.과거를 둘 다 거칠 수 있다

㉢ 백정 농민은 법제상 양인이므로 과거에 응시할 수 있으나 주로 잡과에 응시하였다.

㉣ 문벌 귀족은 주로 5품 이상이므로 음서제의 특권을 누렸다

10. 다음 사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복원 전 모습

복원 후 모습

① 단아하면서도 균형 잡힌 쌍사자 석등이 있다.
② 목조 건물들이 임진왜란 때 불타기도 하였다.
③ 석가탑 안에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발견되었다.
④ 석굴암과 함께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⑤ 삼국유사에는 김대성이 현생의 부모를 위해 건립한 것으로 전한다.

정답: ①

* 불국사에 대하여

창건에 대하여 여러설이 있으나 삼국유사에 따르면 경덕왕 10년 김대성이 전세(前世)의 부모를 위하여 석굴암을, 현세(現世)의 부모를 위하여 불국사를 창건하였다고 하였으며, 대웅전 25칸, 다보탑 ·석가탑 ·청운교(靑雲橋) ·백운교(白雲橋), 극락전 12칸, 무설전(無說殿) 32칸, 비로전(毘盧殿) 18칸 등을 비롯하여 무려 80여 종의 건물(약 2,000칸)이 있었다고 한다.

1593년 5월 임진왜란의 병화로 2,000여 칸의 대가람이 불에 타버리자 1604년(선조 37)경부터 복구와 중건이 시작되어 1805년(순조 5)까지 40여 차례에 걸쳐 국가적으로 또는 승려들에 의하여 부분적인 중수(重修)가 이루어졌으며 1805년 비로전 중수를 끝으로 그 이상의 기록은 찾을 수 없다.

사원 내에 있는 석가탑은 1966년 해체·복원공사를 하던 중 제2층 탑신 중앙부 사리공에서 금강사리함(金剛舍利函)과 많은 유물이 발견되었다. 그 가운데 《무구정광대다라니경(無垢淨光大陀羅尼經)》은 8세기 초엽 목판(木板)으로 인쇄된 다라니경문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쇄물임이 밝혀졌다.

또한 불국사와 석굴암은 2000년 12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① 쌍사자 석등은 충북 보은 법주사에 있는 것이 단아하고 균형 잡혀 있다

11. (가)~(다)는 고려 시대 역사서의 내용이다. 이들 역사서를 옳게 배열한 것은? [3점]

(가) 지금의 학사 대부가 중국 역사에 대하여는 자세히 알고 있으나, 우리나라 역사에 대하여는 도리어 아득하고 그 시말(始末)을 알지 못하니 매우 한탄스러운 일이다.
(나) 요동에 별천지가 있으니, 중국과는 확연히 구분되도다. 큰 파도가 출렁거리며 삼면을 둘러쌌는데, 북녘에는 대륙이 있어 가늘게 이어졌도다. 가운데에 사방 천 리 땅, 여기가 조선(朝鮮)이니, 강산의 형승은 천하에 이름이 있다.
(다) 구삼국사를 얻어 보니 그 신이한 사적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하였다. 그러나 역시 처음에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귀환(鬼幻)스럽다고 생각하였다. 여러 번 탐독 음미하여 차차 그 근원에 들어가니 환(幻)이 아니고 성(聖)이며, 귀(鬼)가 아니고 신(神)이었다.

	(가)	(나)	(다)
①	삼국사기	제왕운기	동명왕편
②	삼국사기	동명왕편	제왕운기
③	동명왕편	삼국사기	제왕운기
④	동명왕편	제왕운기	삼국사기
⑤	제왕운기	삼국사기	동명왕편

정답: ①

* 고려 시대의 역사서

동명왕편: 이규보가 지은 그의 문집인 '동국이상국집' 제3권에 수록된 '동명왕편'의 서문에서 "越癸丑四月, 得舊三國史, 見東明王本紀, 其神異之迹, 踰世之所說者 然亦初不能信之, 意以爲鬼幻 及三復耽味, 漸涉其源, 非幻也, 乃聖也, 非鬼也, 乃神也"라 하여 그가 지금껏 절대적 진리라고 믿어온 유교적 합리주의와는 너무도 어긋나는 우리 나라 고대의 모습에 혼돈되었다가 깨어남을 볼 수 있다

제왕운기: 이승휴의 '제왕운기' <地理紀>편에 "遼東別有一乾坤 斗與中朝區以分 洪濤萬頃圍三面 於北有陸連如線 (一作華句) 中方千里是朝鮮 江山形勝名敷天 耕田鑿井禮義家 華人題作小中華"라 기록되어 있어 주체적인 역사 인식을 볼 수 있다.

삼국사기: 김부식의 '進三國史表에 보면' "以謂今之學士大夫 其於五經諸子之書 秦漢歷代之史 或有淹通詳說之者 至於吾邦之事 却茫然不知其始末 甚可嘆也"라 하여 삼국사 편찬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12.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 예부 전서 조박이 상소하였다.
> "조선의 [(가)]은(는) 동방에서 처음 천명(天命)을 받은 임금이고, [(나)]은(는) 처음 교화를 일으킨 임금입니다. 평양부로 하여금 때에 맞추어 제사 드리도록 하십시오."
> -「태조실록」-

〈 보 기 〉

ㄱ. (가)-고려 때 동명왕과 함께 제사지냈다.
ㄴ. (가)-삼국유사와 제왕운기 등의 기록에 나타나 있다.
ㄷ. (나)-조선이 건국되면서 개국 시조로 숭배되었다.
ㄹ. (나)-일본 학자들에 의해 식민 사학 이론에 이용되었다.

① ㄱ, ㄷ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④

* (가) 단군과 (나) 기자

둘다 고조선과 관련 있지만 단군은 우리 민족의 정신적 지주이고, 기자는 중국에서 도래한 유교(성리학)의 교화지군으로서 존화주의와 관련 있다

단군 숭배: 문헌으로 확인되는 단군신앙의 역사는 고려시대부터이다. '삼국사기'의 선인왕검(仙人王儉) 기사와 1131년(인종 9) 묘청이 임원궁에 지은 팔성당(八聖堂)의 하나인 '구려평양선인 실덕연등불(駒麗平壤仙人 實德燃燈佛)'을 살펴보면 12세기 이전에도 단군을 수호신으로 숭배했음을 알 수 있다. 13세기에는 거란과 몽고가 고려를 침략하자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내부의 갈등 해소를 위해 단군을 국조로 인식하는 저술이 행해졌다. '삼국유사', '제왕운기'등이 대표적이며 조선 초기에는 '조선경국전', '삼국사략' 등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평양의 단군사(檀君祠)나 구월산의 삼성사(三聖祠) 등에서 단군을 모시는 국가적 행사가 치러졌다.

㉠ 단군은 환웅, 환인과 함께 제사지내었다(삼성단)

㉡ 단군의 고조선 건국은 삼국유사, 제왕운기, 응제시주, 세종실록지리지 등에 기록되어 있다

㉢ 기자는 조선 개국 시(15세기 초) 시조로 숭배되지 않았고 16세기 들어 사림이 집권하고 이이 등의 '기자실기' 등의 저술되는 존화주의의 심화에 따라 숭배되기 시작했다

㉣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를 건국한 시조가 중국에서 동래하였다는 이론은 일제의 식민사관 이론으로 안성맞춤이었다

13. 조선 초기에 건립된 목조 건축물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보기〉

ㄱ. 금산사 미륵전

ㄴ. 평양 보통문

ㄷ. 개성 남대문

ㄹ. 법주사 팔상전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③

* 조선의 시대별 건축 양식

초기: 도성을 건설하고, 경복궁을 지었으며, 곧이어 창덕궁과 창경궁을 세웠다. 지금까지 남아 있는 창경궁의 명정전과 도성의 숭례문, 창덕궁의 돈화문이 당시의 위엄스러운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특히, 도성의 정문인 숭례문은 고려의 건축 기법과는 다른 방식을 채택하여 발전된 조선 전기의 건축을 대표하고 있다. 반면에 개성의 남대문과 평양의 보통문은 고려 시대 건축의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을 지니면서 조선 시대 건축으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후기: 불교가 신앙의 자리를 어느 정도 차지하고 정치·경제적 변화가 나타나면서 건축에도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다. 양반들과 새롭게 부상하고 있던 부농, 상공업 계층의 지원 아래 많은 사원이 세워졌고, 정치적 필요에 의하여 대규모 건축물들이 세워지기도 했다

17세기의 건축으로는 금산사 미륵전, 화엄사 각황전, 법주사 팔상전 등을 대표로 꼽을 수 있다. 이것들은 모두 규모가 큰 다층 건물로 내부는 하나로 통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데, 불교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양반 지주층의 경제적 성장을 반영하고 있다.

18세기에는 사회적으로 크게 부상한 부농과 상인의 지원을 받아 그들의 근거지에 장식성이 강한 사원이 많이 세워졌다. 논산 쌍계사, 부안 개암사, 안성 석남사 같은 사원이 대표적이다.

14. 다음 자료의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 ㅇ 경국대전에는 "궐내의 경적(經籍)을 관장하고 문한(文翰)을 다스리며 왕의 고문에 대비한다."고 하였다.
> ㅇ 옥당이라고도 부르며 그 관원은 경연을 담당하였다.
> ㅇ 부제학에서 부수찬에 이르는 관원은 왕의 교서를 작성하는 일을 맡았다.

① 장관을 대제학이라 하였다.
② 외교 문서의 작성을 전담하는 관원이 있었다.
③ 사간원, 사헌부와 함께 언론 3사라고도 하였다.
④ 소속 관원은 청요직이라 하여 선망의 대상이었다.
⑤ 세조 때 폐지된 집현전과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정답: ②

* 조선 시대 홍문관:

홍문관: 조선 시대에 궁중의 경서(經書) ·사적(史籍)의 관리, 문한(文翰)의 처리 및 왕의 자문에 응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청.

옥당(玉堂)·옥서(玉署)·영각(瀛閣)이라고도 하며, 사헌부(司憲府)·사간원(司諫院)과 더불어 이른바 언론(言論) 삼사(三司)라고 한다. 조선시대 청요직(淸要職)의 상징으로서 정승·판서 등 고위 관리들은 거의 예외없이 이곳을 거쳐갔다.

홍문관의 일은 본래 정종 때 설치한 집현전(集賢殿)에서 맡아 하였는데, 집현전 학자들 가운데 세조의 왕위찬탈에 반대하여 단종복위를 꾀한 사육신이 나왔다. 이에 세조는 집현전을 혁파하고 예문관(藝文館)에서 그 기능을 맡게 하였다. 이후 1463년(세조 9) 양성지(梁誠之)의 건의에 따라 장서각(藏書閣)을 홍문관이라 하였으나 이때의 홍문관은 장서(藏書) 기관의 역할만 하였다. 학술·언론기관의 기능은 여전히 예문관에 속하였으나 온전히 수행되지 못하다가 1478년(성종 9) 옛 집현전의 직제를 예문관에서 분리하여 홍문관에 이양함으로써 비로소 학술·언론기관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다.

장관은 대제학(정2품)이다

② 조선시대에 외교 문서를 담당한 관청은 승문원(承文院)이다.

15. 다음 자료를 통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나라 제도에 부곡리(部曲吏)는 비록 공이 있더라도 5품을 넘을 수 없었다. 유청신은 몽골어를 익혀 왕명으로 여러 차례 원에 사신으로 다녀왔는데, 답변을 잘하여 충렬왕의 총애를 받고 낭장에 임명되었다. 왕이 교서를 내리기를, "유청신은 힘을 다하여 공을 세웠으니 비록 그 가세(家世)가 5품에 제한되어야 마땅하나, 그만은 3품까지 오를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하였다. 또한 고이부곡(高伊部曲)을 승격시켜 고흥현(高興縣)으로 삼았다. -「고려사」 열전 유청신 -

① 신분에 따라 승진의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② 몽골어를 잘하여 출세하는 이들도 있었을 것이다.
③ 이 자료의 주인공은 고려의 자주성 회복에 힘썼을 것이다.
④ 공로를 세우면 출신 부곡이 현으로 승격될 수 있었을 것이다.
⑤ 부곡의 향리는 일반 군현의 향리에 비해 차별을 받았을 것이다.

정답: ③

* 고려 신분제와 권문세족

권문세족(權門勢族) 또는 권문세가(權門勢家)는 고려시대의 문벌 귀족 가문, 무신 정권기에 새로 등장한 가문, 원과의 관계를 통하여 성장한 가문 등을 일컫는다.

13세기 고려 원 내정간섭기에 성장한 지배층으로, 몽고 침략에 협력하였거나 왕이 원나라에 있을 때 함께 있었던 측근 세력이나 이전부터 권세를 누려왔던 문무 관리 집안과 혼인을 맺음으로써, 고려 후기의 지배세력으로 등장한 가문이다.

크게 고려 전기부터 있던 문벌귀족 일부와 무신 집권기에 성장한 가문, 그리고 몽골어 통역관으로 출세하는 등 몽골과의 친선 관계를 통해 새로 등장한 가문으로 구성되었다.

권문세족은 백성들의 토지를 빼앗아 농장을 경영하고,가난한 백성들을 노비로 만들어 농장을 경작하게 되었다.그러하여 백성들의 수가 적어지고 조세를 내야 할 백성이 줄어 국가의 조세 수입도 감소하여 나라의 재정이 매우 궁핍하게 만든 세력을 권문세족이라 한다(권문세가)

① 향리는 속현 및 특수부락인 향.부곡의 행정을 담당하였다. 보기의 내용과 같이 5품 이상의 관직에 못오르는 한계가 있었다

② 몽골과 결탁한 권문세족이 대표이다

③ 권문세족은 원과 결탁하였기에 자주성 회복에 앞장서지 못하였을 것이다

④ 공을 세우면 천대받던 부락인 향.부곡도 일반 현으로 승격 가능하다

⑤ 일반 군현민보다 향.부곡민이 차별 받았듯이 이곳의 향리도 당연히 차별받았다

16.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승탑[부도]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 고려 전기에 제작되었다.
○ 신라의 전통적인 양식에서 크게 벗어났다.

〈보기〉

ㄱ.

전(傳) 홍법사 염거화상탑

ㄴ.

정토사 홍법국사 실상탑

ㄷ.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

ㄹ.

쌍봉사 철감선사탑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③

* 고려 전기의 승탑(부도)

나말: 신라 말기에 선종이 널리 퍼지면서 승려들의 사리를 봉안하는 승탑과 탑비가 유행하였다. 팔각원당형을 기본형으로 삼고 있는 승탑과 승려의 일대기를 비에 새겨 세운 탑비는 세련되고 균형감이 뛰어나 이 시기 조형 미술을 대표한다. 이런 승탑과 탑비는 지방 호족들의 정치적 역량이 성장하였음을 반영하고 있다.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 홍법사 염거화상탑 등이 대표이다.

여초: 승려들의 승탑은 고려 시대에도 조형 예술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고달사지 승탑과 같이 신라 후기 승탑의 전형적인 형태인 팔각원당형을 계승하는 것이 많았으나 특이한 형태를 띠면서 조형미가 뛰어난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 등도 만들어졌다.

㉢ 정토사 홍법국사 실상탑: 국보 제102호. 고려 목종 때의 승려인 홍법국사의 부도로, 충북 중원의 정토사 터에 있던 것을 1915년에 경복궁으로 옮겼다. 1017년경에 만든 화강석제로 총높이 2.55m, 하층 기단폭 1.7m, 8각 원당의 기본형을 잃지 않으면서 일부에는 새로운 기법이 사용되었다. 즉 탑신이 원구형이 된 것은 다층석탑의 복발형(覆鉢形)에서 얻은 착상인지도 모르지만 기발한 의장이다.

팁: 국사라는 호칭은 고대(고려 이전)에는 쓰지 않았고 고려 이후에 썼으므로 신라 말과 고려 초를 구별할 수 있다

17. 다음 자료의 밑줄 그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나는 옛날 공(公)의 문하에 있었고 공은 지금 우리 수선사에 들어왔으니, 공은 불교의 유생이요 나는 유교의 불자입니다. 서로 손과 주인이 되고 스승과 제자가 됨은 옛날부터 그러하였고 지금에야 비롯된 것은 아닙니다.

① 유교와 불교의 일치를 주장하였다.
② 권문세족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③ 처음으로 수선사 결사 운동을 전개하였다.
④ 교종의 입장에서 선종을 통합하려 하였다.
⑤ 성균관의 부흥을 통해 성장한 신흥 유학자였다.

정답: ①

* 혜심의 유불일치설

무신 집권 이후의 사회 변동기를 지나며 불교계에서도 본연의 자세 확립을 주창하는 새로운 종교운동인 결사운동이 일어났다. 지눌은 명리에 집착하는 당시 불교계의 타락상을 비판하였다. 그는 승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독경과 선 수행, 노동에 고루 힘쓰자는 개혁 운동인 수선사 결사를 제창하였다. 송광사에 중심을 둔 수선사 결사 운동은 개혁적인 승려들과 지방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지눌의 결사 운동은 지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전하였다. 혜심은 유불 일치설을 주장하며 심성의 도야를 강조하여 장차 성리학을 수용할 수 있는 사상적 토대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혜심: 원래 1201년(신종 4)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한 유학자였으나 마음을 돌려 불교에 귀의하여 불교정화운동의 일환인 수선사(修禪社)에 들어갔다가 지눌(知訥)의 뒤를 이어 제 2세 사주(社主)가 되었다.

② 권문세족은 보통 원의 간섭기(1270~1351) 이후에 등장한 것으로 본다
③ 수선사는 지눌이 처음 전개하였다
④ 고려 전기 의천의 입장이다
⑤ 성균관 부흥은 고려 공민왕 때(1362)에 있었다.

18. 다음 자료와 참전 신분이 가장 유사한 성격을 지닌 전투는? [1점]

> 처음 충주 부사 우종주가 매번 문서 처리에 있어서 판관 유홍익과 뜻이 맞지 않았는데, 몽골병이 장차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성 지킬 일을 의논하였다. 그런데 의견 차이가 있어 우종주는 양반 별초(兩班別抄)를 거느리고, 유홍익은 노군(奴軍)과 잡류 별초(雜類別抄)를 거느리고 서로 시기하였다. 몽골병이 오자, 우종주와 유홍익은 양반 등과 함께 성을 버리고 다 도주하고, 오직 노군과 잡류만이 힘을 합하여 이를 격퇴하였다.
>
> -「고려사」-

① 진포 전투 ② 홍산 전투 ③ 안융진 전투
④ 처인성 전투 ⑤ 관음포 전투

정답: ④

* 고려 후기 몽골의 침입과 하층민의 분전

몽고와의 항쟁에서 무신 정권은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고, 주민을 산성과 섬으로 피난시킨 뒤 항전과 외교를 병행하면서 저항하였다. 이 기간에 김윤후가 이끈 민병과 승군이 처인성(경기 용인)에서 몽골 장수 살리타(撒禮塔)의 군대를 물리치는 등 일반 민중의 항쟁이 이어졌다. 특히,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노비와 부곡 지역의 주민까지도 몽골에 대항하여 싸웠다.

여기서 나오는 노군은 관청에서 사역하는 공노비를 주축으로 임시 무장시킨 부대로 생각되며, 잡류는 관청에서 잡역에 종사하는 지방민이라고 생각된다.

① 진포 전투: 1380년 왜구의 침입 당시 최무선이 화포를 이용하여 적선 500척을 진포(금강 하구)에서 크게 무찌를 전투
② 홍산 전투: 1376년 왜구의 침입을 최영 장군이 충남 홍산에서 크게 무찌른 대첩
③ 안융진 전투: 993년 거란의 1차 침입 때 발해 왕족 출신 대도수가 크게 승리한 곳. 이를 바탕으로 강동6주를 얻는 교섭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④ 처인성 전투: 1232년(고종 19)의 몽고 2차 침입 적장 살리타이의 공격을 하층민 부락인 처인 부곡(오늘날 용인) 주민들이 무찌른 전투. 당시 승려였던 김윤후는 적장 살리타이를 사살(射殺)하였다
⑤ 관음포 전투: 고려 말인 1383년 5월(고려 우왕 9) 정지(鄭地)의 함대가 관음포 앞바다에서 왜구를 크게 무찌른 해전.

19. 다음 자료를 근거로 조선 초기의 가족 제도와 혼인 제도에 대하여 적절하게 추론한 것은? [1점]

> ㅇ우리 동방의 전장문물(典章文物)은 모두 중국을 본받았으나, 오직 혼인의 예만은 오히려 옛날 풍속으로 돌아가 양으로 음을 좇아 남자가 여자의 집으로 들어가 자식을 낳아 손(孫)에 이르도록 외가에서 자라니 사람들이 본종(本宗)의 중함을 모르더라. -「태종실록」-
>
> ㅇ우리나라의 풍속은 남자가 처가에서 자라나니 처부모를 볼 때 오히려 자기 부모처럼 하고 처의 부모도 그 사위를 자기 아들처럼 대한다. -「성종실록」-

① 장자 중심의 상속 제도가 확립되었다.
② 부계 중심의 가족 제도가 더욱 강화되었다.
③ 아들 없는 집안에서는 양자를 들이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④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혼인하는 동성혼이 이루어졌다.
⑤ 고려 시대와 같이 서류부가(婿留婦家)의 풍속이 행하여졌다.

정답: ⑤

* 조선 초기 가족.혼인.상속 제도의 특징:

조선 후기와 같은 부계 위주, 적장자, 가부장적인 모습이 아니라 비교적 평등한 모습
조선의 가족 제도는 부계와 모계가 함께 영향을 미치는 형태에서 부계 위주의 형태로 변화하여 갔다.
조선 중기까지도 혼인 후에 남자가 여자 집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아들과 딸이 부모의 재산을 똑같이 상속받는 경우가 많았다. 집안을 잇는 자식에게 5분의 1의 상속분을 더 준다는 것 외에는 모든 아들과 딸에게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주는 것이 관행이었다.
재산 상속을 같이 나누어 받는 만큼 그 의무인 제사도 형제가 돌아가면서 지내거나 책임을 분담하기도 하였다.

①, ②, ③은 조선 후기에 종법제도의 심화에 따라 달라진 부계중심, 적장자 위주의 혼인.가족.상속제도이다

④ 조선시대는 전 기간에 걸쳐 성리학적 가치관에 따라 동성혼(同姓婚)이 금지 되었다

⑤ 서류부가(婿留婦家)란 신랑이 신부댁에 일정기간 유한다는 것으로서 17세기 이후 성리학적인 의식과 예절이 발달하고 부계중심의 가족 제도가 확립되면서 혼인 후 곧바로 남자 집에서 생활하는 친영(親迎) 제도가 정착하게 되었다.

20. 다음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2점]

〈 보 기 〉

ㄱ. 현존하는 동양 최고(最古)의 세계 지도로 일본에 남아 있다.
ㄴ. 15세기 초 태종 때 이회, 이무, 김사형 등이 왕명으로 제작하였다.
ㄷ. 지도의 서남쪽에는 아프리카를, 동쪽의 한반도 밑에는 일본을 그렸다.
ㄹ. 중국에 온 예수회 선교사들이 만든 세계 지도를 참고하여 제작하였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①

* 조선 초기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1402년(태종 2) 5월 김사형·이무·이회 등이 작성한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지도이자 현존하는 동양 최고(最古)의 세계지도.

지도에는 중국이 지도의 중앙에 가장 크게 그려져 있고, 우리나라가 다음으로 크게 그려져 있다. 당시 우리나라와 중국에 대한 지리적 정보는 매우 우수하다. 지명도 매우 자세하게 기입되어 있다. 특히 한반도의 모습이 오늘날의 지도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두 나라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 대한 지리적 정보는 매우 빈약하다. 특히 일본은 지리적 위치가 부정확하게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아 중국에 비하여 일본에 대한 지리 정보가 상대적으로 빈약했음을 보여준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남쪽에 배치되어 있으며, 크기도 우리나라보다 아주 작게 그려져 있다. 그것도 일본 서해안 지역이 북쪽을 향하게 배치되어 방위가 틀어져 있다. 아프리카, 유럽은 매우 빈약하게 그려져 있고 신대륙인 아메리카나 대양주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당시 조선)를 비롯하여 여러 국가나 대륙명이 기입되어 있지 않아 지도상의 지역들이 어느 나라 어느 대륙을 나타내고 있는지 정확히 전하지 못하고 있다.

㉣ 중국에 온 예수회 선교사들이 들어 온것은 명말 청초이다. 즉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이다.(대표적 인물 마테오리치)

21. 다음 사건이 일어났던 시대의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 ○ 황해도의 도적이 비록 방자하다고 하지만 그 우두머리는 8~9명에 지나지 않으며, 모이면 도적이고 흩어지면 백성이다. -「○○실록」-
>
> ○ 임꺽정은 양주골 백정이다. …… 경기에서 황해에 이르는 사이의 아전과 백성들이 그들과 은밀히 결탁하여 관에서 잡으려 하면, 번번이 먼저 알려 주었으므로 이 때문에 기탄없이 횡행하여 관에서 막지 못하였다. -「연려실기술」-

① 백운동 서원이 소수 서원으로 사액되었다.
② 방납의 폐단으로 농민의 부담이 늘어났다.
③ 예송을 둘러싸고 서인과 남인이 대립하였다.
④ 왕의 외척들의 권력 다툼으로 사화가 일어났다.
⑤ 을묘왜변을 계기로 비변사가 상설 기구가 되었다.

정답: ③

* 조선 중기(16C) 수취체제의 문란과 농민의 유망 및 도적화(임꺽정)

15세기 안정감을 보이던 조선은 사림의 집권을 전후인 16세기에 이르러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동요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정치적으로는 훈구와 사림의 정쟁인 사화가 발생하였으며, 그 중 최대의 사화는 왕실 외척과 관련된 을사사화(1545)이었다. 최종적으로는 향촌의 지배력을 갖고 있는 사림이 선조 집권을 전후하여 정권을 장악하였다. 외적으로는 왜구의 침입이 잦아지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비변사가 등장하고(삼포왜란) 상설기구화(을묘왜변)까지 되었다.

경제.사회적으로는 명종 때에 이르러 직전법이 폐지되며 지주전호제가 일반화 되자 토지의 사유화 현상이 심해지며 대다수 농민들은 소작농화 되고 방납의 폐단, 군포 부담의 증가 환곡의 고리화 등으로 인해 유망하거나 도적화 되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임꺽정이다.

문화적으로는 백운동 서원이 처음 등장하였고 사액화되어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으며 함께 등장한 향약과 함께 사림들의 향촌사회 장악의 기반이 되었다.

③ 서인과 남송의 예송논쟁은 조선 후기(17세기 후반 현종)의 모습이다

22. 다음 자료의 밑줄 그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 ○ 명종 때 그가 올린 '을묘사직소'에서
> "전하의 나라 일이 이미 잘못되어 나라의 근본이 망하였고, 하늘의 뜻이 가버렸으며, 인심도 이미 떠났습니다. 비유하면 큰 나무가 백 년 동안 벌레가 속을 먹어 진액이 이미 말라 버렸는데 회오리바람과 사나운 비가 어느 때에 닥쳐올지 까마득하게 알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 이 지경에 이른 지 오래됩니다."라고 직언하였다.
> ○ 그의 학문은 수양과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경(敬)을 통한 수양을 바탕으로, 외부의 모순에 대하여 과감하게 실천하는 개념인 의(義)를 신념화하였다. 그는 '경'의 상징으로는 성성자(惺惺子)라는 방울을, '의'의 상징으로는 칼을 찼다. 그 칼에는 "안으로 밝히는 것은 경이요, 밖으로 결단하는 것은 의이다[內明者敬 外斷者義]."라고 새겨 놓았다.

〈보 기〉

ㄱ. 벼슬하지 않고 재야에서 처사로 일생을 보냈다.
ㄴ. 의병장인 곽재우, 정인홍 등이 그의 문하생이다.
ㄷ. 퇴계와 함께 영남 학파의 양대 산맥으로 일컬어진다.
ㄹ. 광해군 때에 동방 5현으로 꼽혀 문묘에 배향되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①

* 조선 중기 성리학자 조식(북인의 태두): 절의를 강조

조식(1501~1572): 조선 중기 학자. 사화를 경험하면서 훈척정치의 폐해를 직접 목격한 탓에 출사를 포기하고 평생을 산림처사로 자처하며 오로지 학문과 제자들 교육에만 힘썼다.

그의 사상은 노장적 요소도 다분히 엿보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수기치인의 성리학적 토대 위에서 실천궁행을 강조했으며, 실천적 의미를 더욱 부여하기 위해 경(敬)과 아울러 의(義)를 강조하였다. 즉 경의협지를 표방하여 경으로서 마음을 곧게 하고 의로서 외부 사물을 처리해 나간다는 생활철학을 견지하였다. 이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그는 일상생활에서는 철저한 절제로 일관하여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으며, 당시의 사회현실과 정치적 모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비판의 자세를 견지하였다

정인홍, 곽재우의 북인으로 대표되는 그의 제자들은 임진왜란 때에는 의병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국가의 위기 앞에 투철한 선비정신을 보여주며 안동지방을 중심으로 한 이황의 경상좌도 학맥과 더불어 영남 유학의 두 봉우리를 이루었다(경상우도 학맥).

⑤ 광해군 때에 문묘에 배향되기 시작한 동방 5현은 김굉필, 정여창, 조광조, 이언적, 이황을 말한다.

23.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 대사헌 조득영이 상소하였다.
> "외척 박종경은 요행히 매우 가까운 친척에 의탁하여 많은 은택을 후하게 입고 있습니다. ……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이기에 관직과 벼슬을 거머쥐고 청요직만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여 일이 권력과 관련되면 자기의 물건으로 간주하고 사방에 뿌리를 박고 있으면서 자신이 모두 담당하고 있습니다." -「순조실록」-

① 매관매직이 성행하였다.
② 삼정의 문란이 심해졌다.
③ 국가 권력이 비변사로 집중되었다.
④ 특정 유력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였다.
⑤ 붕당의 본거지인 서원이 대폭 정리되었다.

정답: ⑤

* 세도정치기 모습(1800~1863)

출전이 순조(1800~1834) 시기임과 매관매직이 성행함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

세도정치기에는 의정부와 6조를 중심으로 하는 체제는 이름만 남게 되었고, 실질적인 힘은 비변사로 집중되었다. 비변사에서도 실질적 역할을 담당하는 자리는 대개 유력한 가문 출신 인물들이 차지하였고, 이들은 자신들의 권한을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데 이용하기도 하였다.

세도 정권은 19세기의 상업 발달과 서울의 도시적 번영에 만족하고, 정조가 등용하였던 재야 세력 즉 남인, 소론, 지방 선비들을 권력에서 배제하여 사회 통합에 실패하였다. 또 지방 사회에서 성장하던 상인, 부농들을 통치 집단 속으로 포섭하지 못하고 그들을 수탈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지방 수령의 자리를 상품화하여 팔기도 하였다(매관매직)

또한 지방 사족을 배제한 채 수령이 절대권을 갖고 향리와 향임을 이용하여 조세를 걷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부정을 견제할 만한 세력이 없었다. 더구나 자연 재해가 잇따라 기근과 질병이 널리 퍼지고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였으나 농민의 조세 부담은 더욱 무거워져 농촌 사회의 불만은 극에 달하였다.(삼정의 문란)

⑤ 서원 정리는 영조 때와 특히 흥선대원군 때(1863~1873)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24.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가)

(나)

(다)

(라)

① (가)－강희안의 작품으로 사색에 잠긴 선비의 내면 세계를 표현하였다.
② (나)－신사임당의 작품으로 여성의 섬세한 필치가 돋보인다.
③ (다)－김홍도의 작품으로 당시 생활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다.
④ (라)－김정희의 작품으로 진경 산수화의 화풍을 계승하였다.
⑤ (가)－(나)－(다)－(라)의 순서대로 그려졌다.

정답: ④

* 조선 시대의 화풍 흐름

(가) **고사관수도**: 문인 화가인 강희안은 시적 정서가 흐르는 낭만적인 그림을 많이 그렸다. 그의 대표작인 고사관수도는 선비가 수면을 바라보며 무념무상에 빠진 모습을 담고 있는데, 세부 묘사는 대담하게 생략하고 간결하고 과감한 필치로 인물의 내면 세계를 느낄 수 있게 표현하였다.(15세기)

(나) **초충도**: 신사임당은 풀과 벌레를 소박하고 섬세하게 그려 여성의 심정을 잘 나타내었다.(16세기)

(다) **무동**: 정선의 뒤를 이어 산수화와 풍속화에 새 경지를 열어 놓은 화가는 김홍도였다. 그는 산수화, 기록화, 신선도 등을 많이 그렸지만 정감 어린 풍속화를 그린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밭갈이, 추수, 씨름, 서당 등에서 자신의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소탈하고 익살스러운 필치로 묘사하였다. 이런 그림에서 18세기 후반의 생활상과 활기찬 사회의 모습을 살필 수 있다.

(라) **세한도**: 김정희 작품(19세기 전반). 극도로 생략 절제된 요소들은 모두 문인화의 특징으로, 작가는 직업화가들의 인위적이며 허식적인 기교주의에 반발, 의도적으로 이와 같은 수법을 쓴 것 같다. 작가의 농축된 내면 세계에서 비롯된 필선과 먹빛이 풍기는 담백 아담한 분위기는 문인화가 지향한 사의(寫意)와 문기(文氣)를 남김없이 보여주고 있다. 조선시대 문인화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④ 세한도는 전형적인 문인화이다

25. 다음 교서를 내린 국왕이 시행한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 "붕당의 폐해가 점점 더하여 각각 원수를 이루어 서로 죽여야만 끝이 났다. …… 나는 다만 마땅한 인재를 취하여 쓸 것이니, 당습(黨習)에 관계된 자를 나에게 천거하면 내치고 귀양 보내어 서울에 함께 있게 하지 않을 것이다. …… 아! 임금의 마음이 이럴진대 신하가 따르지 않는다면, 이는 내 신하가 아니다." -「○○실록」-

① 정치에서 소외되었던 시파를 대거 등용하였다.
② 탕평파를 육성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정국을 운영하였다.
③ 왕권을 강화하여 붕당 간의 세력 균형을 유지하려 하였다.
④ 이조 전랑이 3사의 관리를 선발하던 관행을 없애고자 하였다.
⑤ 노론과 소론을 조정하면서 일련의 군제·정치 개혁을 단행하였다.

정답: ①

* 영조의 완론 탕평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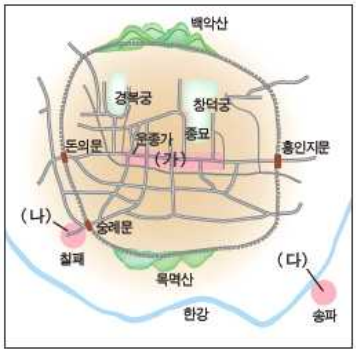
영조는 즉위 직후 탕평의 교서를 발표하여 어지러운 정국을 바로잡으려 했으나 자신이 노론과 소론을 번갈아 등용하여 오히려 정국을 더욱 어지럽게 하였다. 소론과 남인의 일부 강경파는 영조의 정통을 부정하고 노론 정권에 반대하여 이인좌의 난을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영조는 이인좌의 난을 계기로 붕당 간의 관계를 다시 조정하여 왕과 신하 사이의 의리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을 절감하였다. 이에 붕당을 없앨 것을 내세우며 왕이 내세우는 논리에 동의하는 탕평파를 중심으로 정국을 운영하였다. 그리고 붕당의 뿌리를 제거하기 위하여 공론의 주재자로서 인식되던 산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들의 본거지인 서원을 대폭 정리하였다. 아울러 이조 전랑의 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그들이 자신의 후임자를 천거하고, 3사의 관리를 선발할 수 있게 해 주던 관행을 없앴다.

영조가 탕평 정치를 실시하면서 왕은 정국의 운영이나 이념적 지도력을 비롯하여 거의 모든 부문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고, 붕당의 정치적 의미는 차츰 엷어졌다. 이에 정치 권력은 왕과 탕평파 대신 쪽으로 집중되었다.

① 영조가 비교적 온건계열을 중심으로 한 완론 탕평인데 반하여 정조는 특권 정치세력을 배제하고 급진계열을 중심으로 한 준론 탕평을 실시하였다. 즉 정조는 각 붕당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를 명백히 가리는 적극적인 탕평을 추진하여 영조 때에 세력을 키워 온 척신·환관 등을 제거하였다. 이에 영조 때의 탕평파 대신들을 엄격하게 비판하였던 노론과 소론의 일부와 그 동안 정치 집단에서 배제되었던 남인 계열이 중용되었다(시파 중용).

26. 지도의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ㄱ. (가)의 상인은 평시서의 감독을 받았다.
ㄴ. (나)의 상인은 주로 왕실이나 관청에 물품을 공급하였다.
ㄷ. (다)의 상인은 보부상과 연계하여 전국의 장시를 지배하였다.
ㄹ. (나), (다)의 상인은 신해통공으로 도성 안에서 자유로운 상행위를 할 수 있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②

* 조선 시대 서울의 시장과 상인

(가) 종로에 위치한 시장 육의전 거리(시전 상인: 관허상인)

(나) 남대문 외곽에 위치한 칠패 시장(난전: 민간상인)

(다) 한강 너머에 있는 송파 시장(난전)

종루, 이현, 칠패는 주로 난전(사상)의 활동지이다

조선은 고려보다도 상업 활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한양으로 천도하면서 종로거리에 상점가를 만들었다. 여기에 개경에 있던 시전 상인을 한양으로 이주시켜 장사하게 하는 대신에 점포세와 상세를 거두었다. 시전 상인은 왕실이나 관청에 물품을 공급하는 대신에 특정 상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부여받았다. 이들 시전 중에서 명주, 종이, 어물, 모시, 삼베, 무명을 파는 점포가 가장 번성하였는데, 후에 이를 육의전이라 하였다. 또, 이들의 불법적인 상행위를 통제하기 위하여 경시서를 두었다.

㉠ 평시서는 경시서의 후신으로 조선시대 시전(市廛)과 도량형(度量衡) ·물가 등에 관한 일을 관장한 관청.

㉡ 관수품 조달은 어용상인인 시전상이나 조선 후기 공인이 담당하였다

㉢ 송파 상인은 서울과 경기도 광주의 길목을 매점매석하여 이익을 취하는 독점상이다. 따라서 전국을 무대로 하는 상인은 아님

㉣ 정조 때의 신해통공(1791)이란 기존의 시전상인의 난전을 단속할 수 있는 권리인 금난전권을 육의전 외에는 모두 폐지하여 난전(사상)의 자유로운 상행위가 가능하게 되었다

27. 다음은 어느 신분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법 내용이다. 이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 수령을 조종 농락하여 권력을 제 마음대로 부려 폐단을 일으킨 자, 몰래 뇌물을 받고 부역을 불공평하게 하는 자, 세를 거두어들일 때 법보다 더 거두어 남용하는 자, 양민을 불법으로 끌어다 남몰래 부려먹는 자, …… 양가 여자와 관비를 첩으로 하는 자는 일반인의 고발을 허락하며, 또한 해당 관청 경재소에서도 사헌부에 고발하여 추궁·조사하고 처벌받게 하는 것을 허락한다. -「경국대전」-

〈 보 기 〉

ㄱ. 직역의 복무 대가로 국가로부터 녹봉을 지급받았다.
ㄴ. 향청에 참여하여 풍속 교화와 향촌 자치에 힘썼다.
ㄷ. 군역을 부담하지 않는 대신에 유사시에는 잡색군에 편제되었다.
ㄹ. 생원·진사시를 볼 때 반드시 소속 군현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⑤

* 조선 시대 향리 계층

향리는 사회적으로 일정한 지위를 가지고 있던 대표적인 지방세력으로서, 비록 중앙집권체제의 강화에 따라 그 세력이 위축되고 신분과 역의 고정화가 되었지만, 실무행정 담당자의 역할은 고려 이래 계속 유지되어왔다. 향리들은 각지에서 독자적인 자치조직과 확고한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당시 지방세력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왕조측에서는 지방지배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향리들의 도움이 필요하였다. 결국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한 지방통치의 실무담당자로서 향리의 사회적 위치는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지위와 권한은 서민들에게는 막강하게 작용하였다.

㉠ 조선 시대 향리는 고려시대와는 달리 국가로부터 직역의 댓가인 토지와 녹봉을 받지 못하여 부정부패가 많았다
㉡ 향청(유향소)은 사족(양반)이 구성원이다.
㉢ 조선시대 잡색군은 일종의 예비군으로 양반에서 노비까지 모든 계층이 편제가 가능하였다.
㉣ 과거의 응시자격은 수공업자·상인·무당·승려·노비·서얼(庶孼)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응시할 수 있었으나 점차 가문을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나, 문과의 소과 시험인 생원.진사시는 양반 신분이면 자유로이 치룰 수 있으나 중인 층에 해당하는 향리층이 치를려면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28. 다음 기구들이 제작되었던 시기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점]

혼천의

거중기

① 칠정산 내편과 외편이 완성되어 역법이 정비되었다.
② 홍역[마진]에 관한 치료법을 정리한 마과회통이 저술되었다.
③ 청과의 통상과 상공업을 진흥시키자는 북학 사상이 나타났다.
④ 국어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훈민정음운해 등이 출간되었다.
⑤ 지전설을 수용하여 중국 중심주의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정답: ①

* 조선 후기 과학기술의 발달

조선 후기에는 실학의 경향으로 전통적 과학 기술을 계승 발전시키면서 중국을 통하여 전래된 서양의 과학 기술을 수용하여 과학 기술면에서도 큰 진전이 있었다.
왼쪽 자료는 홍대용이 발명한 천체관측기구인 혼천의이고, 오른쪽 자료는 정약용이 발명한 거중기이다

① 조선 전기에도 천문학의 발달과 함께 새로운 역법이 마련되었다. 세종 때 만든 칠정산은 중국의 수시력과 아라비아의 회회력을 참고로 하여 만든 역법서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서울을 기준으로 천체 운동을 정확하게 계산한 것이다. 이는 15세기 세계 과학의 첨단 수준에 해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② 정약용은 마진(홍역)에 대한 연구를 진전시키고 이 분야의 의서를 종합하여 마과회통을 편찬하였으며, 박제가와 함께 종두법을 연구하여 실험하기도 하였다.
③ 청나라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부국강병과 이용 후생에 힘쓰자고 주장하였으므로 이들을 이용 후생 학파 또는 북학파라고도 한다.
④ 우리의 언어에 대한 연구도 진전되어 신경준의 훈민정음운해와 유희의 언문지 등이 나왔고, 우리의 방언과 해외 언어를 정리한 이의봉의 고금석림도 편찬되었다.
⑤ 홍대용과 김석문은 지전설을 주장하였다. 또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무한 우주론을 내놓았는데, 당시로서는 대담한 주장이었다. 이리하여 조선 후기의 천문학은 전통적 우주관에서 벗어나 근대적 우주관으로 접근해 갔다.
김석문과 홍대용의 지전설은 성리학적 세계관을 비판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29. 다음과 같은 상황이 나타났던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 ○ 영덕의 고가대족(故家大族)은 모두 남인이며 소위 신향(新鄕)은 모두 서리·품관(品官)의 아들이고 자칭 서인이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근래 서인이 향교를 주관하면서 구향(舊鄕)들과 서로 마찰을 일으켰습니다. -「승정원일기」-
>
> ○ 영남은 평소 사대부의 고장이라 일컬어져 서민들이 양반을 본받기 때문에 전에는 유현(儒賢)이 배출되고 풍속이 보고 느낄 만하였습니다. 지금은 인심이 점점 경박해져서 점차 옛날만 못하게 되고 토호들의 향전이 고질적인 폐단을 이루었으며 글을 읽는 사람이 없습니다. -「영조실록」-

〈 보 기 〉

ㄱ. 기존 사족들은 동족 마을을 토대로 결속력을 강화하고 향촌 지배권을 유지하려 하였다.
ㄴ. 신향은 관권과 결탁하여 성장의 기반을 굳건히 하면서 향회에 참여하여 이를 장악하려 하였다.
ㄷ. 구향은 신향의 성장에 대응하여 향사례와 향음주례를 널리 실시하여 세력을 잃지 않으려 하였다.
ㄹ. 종래 양반의 이익을 대변하던 향회는 주로 수령이 세금을 부과할 때 의견을 묻는 자문 기구로 역할이 바뀌었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④

* 조선 후기 향촌 지배를 둘러싼 신향과 구향의 싸움(향전)

조선 후기에는 향촌 사회의 부농들이 그들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양반(신향)으로 성장하여 종래의 전통적인 양반(구향)과 대립하였다. 이에 따라 향촌 사회는 재향사족의 지배력이 약화되고 수령권이 강화되는 등 향촌 질서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부농층은 관권과 결탁하여 성장의 기반을 굳건히 하면서 향안에 참여하는가 하면 향회를 장악하고자 하였다. 이로 인하여 조선 후기 향촌 사회는 관권이 강화되고 아울러 관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던 향리 세력이 강화되었다.

㉠ 기존 사족들은 군현을 단위로 하여 농민을 지배하기 어렵게 되자 거주지를 중심으로 촌락 단위의 동약을 실시하거나 족적 결합을 강화함으로써 자기들의 지위를 지켜나가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에 많은 동족 마을이 만들어지고 문중을 중심으로 서원, 사우가 세워졌다.
㉡ 부농층(신향)은 관권과 결탁하여 성장의 기반을 굳건히 하면서 향안에 참여하는가 하면 향회를 장악하고자 하였다.
㉢ 향사례(鄕射禮)와 향음주례는 고을의 유덕자를 존경하고 예양읍손(禮讓揖遜)의 풍조를 이룩하기 위한 유교적 연중행사이다. 사족의 기득권 유지와는 관련이 없다.
㉣ 부농층들은 당시에 요호부민으로 불렸다. 이들은 자기의 전지를 소유하고 지방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농민들이었다. 이에 따라 종래 양반의 이익을 대변하여 왔던 향회는 주로 수령이 세금을 부과할 때 의견을 물어보는 자문 기구로 구실이 변하였다.

30. 다음 자료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 ○ 종전에 허다하게 주조한 전화는 결코 그해에 한꺼번에 쓸 리가 없으며, 경외 각 아문의 예비 재정도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최근에 전황이 심합니다. 신의 생각에 이것은 부상대고(富商大賈)들이 때를 타서 화폐를 숨겨 반드시 이익을 노리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변사등록」—
>
> ○ 지금 돈을 사용한 지 겨우 70년 밖에 되지 않았으나, 폐단이 더욱 심하다. 돈은 탐관오리에게 편리하고, 사치하는 풍속에 편리하고, 도둑에 편리하나, 농민에게는 불편하다. 돈 꿰미를 차고 저자에 나아가서 무수한 돈을 허비하는 자가 많으므로, 인심이 날로 각박해진다. —「성호사설」—

① 전황으로 빈부의 격차가 더욱 심해졌다.
② 동전이 잘 유통되지 않자 정부는 저화를 발행하였다.
③ 지주와 대상인들은 화폐를 재산 축적의 수단으로 삼았다.
④ 상공업 발전에 따라 화폐가 전국적으로 유통될 수 있었다.
⑤ 농민들은 필요한 동전을 구입하기 위하여 곡물을 헐값으로 팔기도 하였다.

정답: ②

* 조선 후기 화폐 유통과 전황

조선 후기 상공업이 발달함에 따라 교환의 매개로써 금속 화폐, 즉 동전이 자연스럽게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다. 정부도 화폐의 유통에 힘써서 인조 때 동전을 주조하여 개성을 중심으로 통용시켜 그 쓰임새를 살펴보고, 효종 때는 이를 널리 유통시켰다. 18세기 후반부터는 세금과 소작료도 동전으로 대납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하여 누구나 동전인 상평통보만 가지면 물건을 살 수 있었다.
이 시기에 동전은 교환 수단일 뿐 아니라 재산 축적의 수단이기도 하였다. 동전의 원료인 구리는 18세기 후반부터 동광의 개발이 활발히 추진되어 공급이 쉬워졌다. 정부도 각 기관으로 하여금 동전의 발행을 권장하였다. 그러나 동전 발행에 대한 통제가 해이해지면서 사적으로 주조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동전의 발행량이 상당히 늘어났는데도 제대로 유통되지 않아 시중에서 동전 부족이 나타났다. (전황 현상)이는 지주나 대상인들이 화폐를 고리대나 재산축적에 이용하였기 때문이었다.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신용 화폐가 점차 보급되어 갔다. 동전은 곡물이나 옷감에 비하여 간편하긴 하였지만 그 중량 때문에 대규모의 상거래에서는 불편하였다. 이에 환, 어음 등의 신용 화폐가 이용되었다. 이는 이 시기 상품 화폐 경제의 진전과 상업 자본의 성장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② 저화는 고려 말·조선 초에 발행되었던 지폐로서 유통이 부진하였다.
⑤ 화폐가 일반적 유통수단이 되자 화폐가 부족한 농민들은 이를 구입키 위해 곡물을 헐값으로 팔기도 하였다.

31. 다음 자료의 서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왼쪽 그림은 정선이 한강 부근의 풍경을 그린 석실서원도이다. 그림 속의 이 서원은 17세기 중엽에 세워져 안동 김씨 가문의 김상헌, 김상용 형제가 배향되었다. 김상헌의 후손인 김원행은 이 서원에서 홍대용 등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였다.

〈보 기〉

ㄱ. 북학 사상의 발생에 기여하였다.
ㄴ. 경화 사족의 자제들이 공부한 곳이었다.
ㄷ. 호락 논쟁 때에는 인물성이론(人物性異論)의 진원지였다.
ㄹ. 주변의 명승지가 위항(委巷) 문학 운동의 산실이 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①

* 석실서원과 경화사족(京華士族)(서인 노론 중 서울 경기지역의 낙론)

한강 부근이 근거지라는 점과 서인의 김상헌을 배향하였다는 전에서 서인(노론)과 낙론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 경화사족 낙론자들이 북학사상에 기여하였다(홍대용, 박제가, 이덕무 등)

석실서원: 1656년(효종 7) 병자호란 때 대표적인 척화신이었던 김상용과 김상헌을 기리기 위하여 건립되었다. 경화사족의 근거지이며 겸재 정선이 강상에서 바라본 경치를 부감법으로 그린 《경교명승첩》중의 석실서원도에 서원 주변의 풍경이 잘 묘사되어 있다.

㉢ 호락 논쟁(湖洛論爭)에서 인간과 사물의 본성이 다르다는 인물성이론(인물성이론)을 주장한 충청도 지역의 호론(호론)과 인간과 사물의 본성이 같다는 인물성동론(인물성동론)을 주장한 서울.경기 지역의 낙론 (낙론) 사이의 논쟁이다. 뒤에 호론은 위정 척사 사상으로 연결되었으며, 낙론은 북학 사상으로 연결되었다.
㉣ 위항문학이란 조선 선조 때부터 싹트기 시작한 중인·서얼·서리 출신의 하급관리와 평민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문학으로서 정조의 후원 아래 서울 인왕산을 중심으로 인왕산을 중심으로 경아전(京衙典)이 주축이 된 중인 이하 계층의 위항인(委巷人)들이 귀족문학으로 성립되어온 한문학의 시단에 대거 참여하여 '옥계시사(玉溪詩社)'라는 그들 독자의 시사를 결성하고, 그들만의 공동시집인 《풍요속선 風謠續選》을 발간하는 등 성관(盛觀)을 이루게 되어 중인문화의 원동력이 되고 뒷날 '필운대풍월(弼雲臺風月)'의 효시를 보게도 되었다.

32. 지도와 같이 (가)의 제도가 확대 실시되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린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가) 의 시행 과정

(가) 은(는) ㉠ 공물을 현물 대신 쌀로 징수하였고, ㉡ 과세 기준도 가호에서 토지 결수로 바뀌어 지주의 부담이 늘었다. 반면에 ㉢ 토지를 가진 농민들은 1결당 쌀 12두(처음에는 16두)를 납부하게 되어 종전에 비해 가벼워졌다. 그리고 ㉣ 토지가 없거나 영세한 농민은 일단 이 부담에서 벗어났다. 또 쌀을 납부하기 어려운 지방에서는 ㉤ 포·목·전 등으로 대신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조세의 금납화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① ㉠ ② ㉡ ③ ㉢ ④ ㉣ ⑤ ㉤

정답: ②

* 조선 후기 대동법

대동법: 임진왜란을 겪으며 정부의 재정 상태가 더욱 악화되자, 부족한 국가 재정을 보완하고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개혁론이 제기되어 결국 대동법이 실시되었다. 대동법은 경기도에 시험적으로 시행되고 이어서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대동법은 농민 집집마다에 부과하여 토산물을 징수하였던 공물 납부 방식을 토지의 면적에 따라 쌀, 삼베나 무명,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하는 제도였다. 대동법의 실시로 과세의 기준은 종전의 가호에서 토지의 결 수로 바뀌었다(공납의 전세화). 따라서 농민들은 대체로 토지 1결당 미곡 12두만을 납부하면 되었다. 이 때문에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에게 과중하게 부과되었던 공물 부담은 없어지거나 어느 정도 경감되었다.

㉡ 토지 결수 부과 방식은 토지가 많은 지주들에게는 부담이 되므로 조세저항이 있게 마련이다.

33. 다음 내용이 서술된 책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 조선 땅덩어리는 실로 아시아의 요충(要衝)을 차지하고 있어, 반드시 다투게 마련이며, 조선이 위태로우면 중국과 일본의 형세도 날로 위급해질 것이며, 러시아가 영토를 공략하려 한다면 반드시 조선으로부터 시작할 것이다. 아! 러시아가 이리와 호랑이 같은 진(秦)나라처럼 정벌에 힘써 온 지 3백여 년이다. 그 처음 대상은 유럽이었고 이어서 중앙아시아였으며, 오늘에 이르러서는 다시 동아시아로 옮겨져 마침 조선이 그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의 오늘날 급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러시아를 막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이 없을 것이다.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맺고, 미국과 연대하여 자강을 도모할 뿐이다.

① 제2차 수신사 김홍집이 집필하였다.
② 후쿠자와 유키치의 조언이 담겨 있다.
③ 영남 만인소가 올려지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④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체결에 영향을 주었다.
⑤ 묄렌도르프가 외교 고문으로 오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

정답: ③

* 조선책략과 조미수호조약, 영남만인소

청.일.조선의 가장 위협이 되는 서구 열강인 러시아를 막는 외교책을 담은 황쭌셴의 조선 책략에는 그 계책으로 친중국(親中國), 결일본(結日本), 연미방(聯美邦)을 주창하였는데 이는 조미수호조약을 체결케함과 동시에 위정척사운동이 불붙는 계기(영남 만인소)가 되었다.

① 2차 수신사 김홍집이 집필한 것이 아니라 그가 황쭌셴의 조선책략을 국내에 도입케 된 것이다
② 일본의 근대화론자 후쿠자와 유기치는 문명개화론을 주장하고 김옥균등의 급진개화파에 영향을 주어 갑신정변을 야기케 되었다
④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은 임오군란 당시 청의 진압과 관련 있다
⑤ 묄렌도르프. 마젠창 등의 고문이 조선에 들어오게 된 것 역시 임오군란과 청의 진압과 관련있다.

34. 다음 건축물을 설계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덕수궁 중명전

세창 양행 직원 사택

손탁 호텔

① 대한 매일 신보를 간행하였다.
② 육영 공원의 교사로 활동하였다.
③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광혜원을 운영하였다.
④ 최초의 여성 교육 기관인 이화 학당을 세웠다.
⑤ 명성 황후의 시해 현장을 목격하고 그 실상을 증언하였다.

정답: ⑤

* 조선에서 활약한 최초의 서양인 건축가 사바친(1860~1921).

유럽의 전통 양식에 한국적 특색을 가미한 독특한 창조물을 많이 남기었다. 파리의 개선문을 모델로 '신로만 양식'을 따랐지만, 장식을 최소화함으로써 한국의 전통 건축미도 배어 나오는 독립문이 그 대표적 사례다. 인천부두와 해관청사, 세창양행 직원 사택, 러시아 공사관, 그리고 손탁호텔, 을사늑약이 체결된 치욕의 장소 경운궁(현 덕수궁) 내 중명전과 정관헌을 설계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는 명성황후가 궁궐에서 일본의 우익 낭인들에게 참살 당하는 비극을 목격하고 그 만행의 진실을 당당히 증언한 것이 유명하다

① 대한매일신보의 간행인은 영국인 베델이다
② 육영공원의 교사로 활동한 사람은 미국인 헐버트이다
③ 광혜원(제중원)을 운영한 사람은 미국인 알렌이다
④ 이화학당을 세운 사람은 미국인 스크랜튼 여사이다

35. 다음 사절단이 파견된 나라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3점]

앞줄은 왼쪽부터 로웰(미국인), 홍영식, 민영익, 서광범, 오례당(중국인),
뒷줄은 왼쪽부터 현흥택, 미야오카(일본인), 유길준, 최경석, 고영철, 변수

① 삼국 간섭에 참여하였다.
② 절영도 조차를 시도하였다.
③ 외규장각 도서를 약탈하였다.
④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하였다.
⑤ 운산 금광 채굴권을 차지하였다.

정답: ⑤

* 미주 시찰단 보빙사

보빙사: 최초로 미국 등 서방 세계에 파견된 외교 사절단.
1882년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의 체결로 1883년 주한(駐韓) 공사 푸트가 조선에 부임하였다. 이에 고종은 임오군란 이후 비대해진 청나라의 세력을 견제한다는 뜻에서 정사(正使)에 민영익, 부사(副使)에 홍영식, 그외에 수행원들을 대동시킨 친선 사절단을 서방 세계에 파견하였다. 사절단은 퍼시벌 로웰과 통역관 미야오카 츠네지로의 인도하에, 태평양을 건너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고 미대륙을 횡단한 다음 워싱턴을 거쳐 뉴욕에서 미국 대통령 체스터 A. 아서와 회동하고 국서를 전하였다.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보여준 한국식 전통 절의 예법은 다소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후 보스턴 등지를 순회하고 대서양을 건너 유럽 각지를 여행한 다음 귀국하였다. 수행원 중의 한 사람인 유길준은 보스턴에 남아 유학하였다.

① 삼국간섭은 러시아,독일,프랑스가 하였다
② 절영도 조차 시도는 러시아이다
③ 외규장각 도서 약탈은 프랑스이다
④ 거문도 불법 점령은 영국이다
⑤ 열강의 이권 침탈 중 운산 금광 채국권, 전기, 전신, 경인선 철도 부설권은 차지한 나라는 미국이다

36. 다음 자료의 밑줄 그은 '작년의 거사' 결과로 체결된 조약의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 작년의 거사는 세상에서 혹은 너무 급격하다 논하는 자 있으나 폐하는 그윽히 성찰하소서. …… 폐하께서 긴밀히 신에게 말씀하시어 민씨 일족을 제거할 계획을 꾸미시고 신도 또한 감읍하여 상주한 바 있나이다. 신이 생각하건대, 지금 이와 같은 간류(奸類)를 제거하지 못할 때는 폐하로 하여금 망국의 군주라는 천추의 한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곧 국가를 위하여 신명을 던져 작년의 거사를 일으켰거늘, 지금 도리어 신을 역적이라 함은 무슨 까닭이옵니까?
>
> – 동경 매일 신문 –

〈 보 기 〉

ㄱ. 일본은 최혜국 대우를 인정받았다.
ㄴ. 조선은 일본 공사관의 신축 비용을 부담하였다.
ㄷ. 일본은 공사관 경비 구실로 군대를 주둔하게 되었다.
ㄹ. 청과 일본은 조선에 대한 파병권을 동등하게 획득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④

* 갑신정변(1884)과 관련된 한성조약, 톈진조약(1885)

전개 과정:

① 배경 : 민씨 정권의 개화당 탄압, 청군 일부 철수(청・프 전쟁 1884), 일본 공사의 지원 약속

② 경과 : 우정국 개국 축하연을 계기로 정변 → 개화당 정부 수립(14개조 정강 마련) → 청군 개입→ 3일 천하로 끝남, 주도 세력 일본 망명

③ 결과

• 한성 조약(조-일) : 일본에 배상금 지불, 공사관 신축비용 부담

• 텐진 조약(청-일) : 양국군 공동 철병, 군대 파병할 때는 사전 통보

• 영향 : 청의 간섭 더욱 강화, 개화 세력 약화

37. (가), (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점]

(가) 고율 소작료, 불안정한 소작권, 농촌 경제의 파탄, 식민지 수탈 정책 등을 배경으로 일어났다.
(나) 노동자 수 증가, 값싼 임금, 열악한 노동 조건 등을 배경으로 전개되었다.

〈보기〉

ㄱ. (가)는 일제의 산미 증식 계획 실시로 주춤해졌다.
ㄴ. (나)를 주도한 계층이 물산 장려 운동을 추진하였다.
ㄷ. (나)는 1910년대 전반기에는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았다.
ㄹ. (가)와 (나)는 1920년대에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 활기를 띠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⑤

* 일제시대의 (가)소작쟁의와 (나)노동쟁의

소작쟁의: 토지 조사 사업과 산미 증식 계획으로 농민의 생활이 몹시 궁핍해진 상황에서 일제는 지주를 옹호하며 소작농을 억압하는 정책까지 폈다. 이에 3·1 운동 이후 정치적 사회적으로 각성된 소작농들은 1920년대부터 일본인 지주나 조선인 지주에 대항하여 소작료 인하, 소작권 박탈 반대 등을 요구하는 소작 쟁의를 벌였다(예: 암태도 소작쟁의). 이 운동은 생존권 투쟁으로 시작되었으나 1930년대 이후 점차 항일 민족 운동으로 발전해 갔다.

노동쟁의: 1920년대 접어들어 회사령이 폐지되자 공장이 늘어남에 따라 노동자가 점차 증가하면서 노동자 조직도 결성되었다. 당시 노동자는 민족 차별적인 저임금, 장시간의 노동 등 노예적인 노동 조건에 허덕이고 있었다. 이에 노동자들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노동 조건 개선, 임금 인상 등을 주장하는 노동 운동을 벌였다(예: 원산 노동자 총파업). 이들의 노동 운동은 일제의 탄압 속에서 성장하여 1930년대에 접어들며 점차 항일 민족 운동으로 발전해 갔다.

㉠ 산미증식계획으로 인한 식민지지주제의 심화에 따라 더욱 활발해졌다
㉡ 물산장려운동은 우파(민족주의)계열 주도의 경제적 구국운동이고 노동.소작쟁의는 사회주의계열(적색조합)이 주도하였다
㉢ 노동쟁의는 1910년대에는 일제의 회사령에 따라 일본의 본격적인 자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회사 설립이 많지 않아 노동자 계층의 크기가 작아 조직화 되기 힘들어 쟁의가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 두 쟁의 공히 1920년대에 등장한 사회주의 적색조합의 영향으로 활발해졌다.

38. (가) 신문의 발간 당시 볼 수 있는 장면으로 적절한 것은? [2점]

> 우리 조정에서도 박문국을 설치하고 관리를 두어 외국 소식을 폭넓게 번역하고 아울러 국내 소식까지 실어, 나라 안에 알리는 동시에 여러 나라에 반포하기로 하였다. 신문의 이름을 (가) (이)라 하여 견문을 넓히고 여러 가지 의문점을 풀어 주며 상리(商利)에도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중국과 서양의 관보, 신보를 우편으로 교신하는 것도 이런 뜻이다.

① 교조 신원을 요구하는 동학 교도들
② 단발령 실시에 비분강개하는 유생들
③ 통역관이 되고자 동문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④ 만민 공동회에 참여하여 연설을 듣는 부녀자들
⑤ 외국 상인들의 철수를 요구하며 시위하는 시전 상인들

정답: ③

* 개항기 모습(한성순보: 1883 발간) 당시

최초의 신문인 한성순보는 박문국에서 출간한 관보이며 외국의 소식과 문물을 소개하였다. 1884년 12월 갑신정변이 일어나 정치적 대격변을 겪으면서, 정변의 실패와 함께 박문국의 인쇄 시설이 모두 불에 타 신문 발간이 중단되었다

① 교조신원운동: 1892~1893년에 일어난 동학교도들의 공개적·집단적인 교조(敎祖) 최제우에 대한 신원(伸寃)운동. 삼례->서울->보은의 집회가 있었다.
② 단발령: 1895년 을미사변에 이은 을미개혁의 일환. 유교적 가치관에 크게 부딪혀 을미의병을 야기하였다.
③ 동문학: 1883년 8월에 설립된 관립 외국어 교육기관
④ 만민공동회: 독립협회가 행한 정치활동의 하나로 시민·단체회원·정부관료 등이 참여한 대중집회이다. 1898년 정부의 친러적 정책과 비자주적 외교에 반대하여 일어난 집회로 자주외교와 국정개혁을 주장한 헌의 6조를 결의하는 등 성과를 보였으나, 보수세력의 무고로 독립협회가 해산되는 등 탄압을 받게되었다.
⑤ 상권수호운동: 시전상인들이 열강의 경제적 침탈에 맞서 결성한 황국중앙총상회의 경제적 구국운동(1898). 설립 목적은 외국상인의 침투에 대항하여 민족적 권익을 수호하면서 그 속에서 시전상인의 독점적 이익을 수호, 유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39. 다음 자료의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2점]

우리 대한이 종전에 자강의 방도를 강구하지 않아 인민이 스스로 우매함에 묶여 있고 국력이 쇠퇴하게 되어, 드디어 오늘의 험난한 지경에 이르러 외국인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 이것은 모두 자강의 방도에 뜻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보 기〉

ㄱ. 공화정체의 국민 국가 수립을 지향하였다.
ㄴ. 고종의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ㄷ. 통감부가 제정한 보안법에 의해 해산되었다.
ㄹ. 국채 보상 운동 때 적극 참여할 것을 결의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정답: ⑤

* 애국계몽운동단체 대한자강회

대한자강회(1906): 헌정 연구회(입헌군주제 표방)의 후신, 교육과 산업의 진흥을 통한 실력 양성 운동 전개. 전국에 지회를 설립하고 '대한자강회월보'도 발간하여 식산흥업(殖産興業)의 필요성, 국가재원 증진책, 황무지개척, 일제 황무지개척의 의도, 임업의 필요성, 토지개량의 필요성, 종자개량 등에 대한 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초기의 계몽운동과 건의안은 일본이 고문의 참여로 배일성이 약하고, 활동범위가 법의 허용 한도 내에 있었기 때문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나 국채보상운동 이후 적극적인 현실참여운동을 전개하면서,1907년 고종 황제의 퇴위와 순종 황제의 즉위를 반대하는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친일매국단체인 일진회(一進會)를 성토하였다. 그러자 통감부는 7월 27일부로 공포된 보안법 제 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8월 21일 강제 해산시켰다. 1907년 11월 10일 조직된 대한협회(친일적 성격으로 변질)의 전신이 되었다.

㉠ 공화정체를 주장한 최초의 애국계몽운동단체는 신민회이다. 그 외 애국계몽운동단체들은 모두 입헌군주제를 표방하였다.

40. 다음 자료의 의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 군사장은 미리 군비를 신속히 정돈하여 철통과 같이 함에 한 방울의 물도 샐 틈이 없는지라. 이에 전군에 명령을 전하여 일제히 진군을 재촉하여 동대문 밖으로 진격할 때, 대군은 긴 뱀의 형세로 천천히 전진하게 하고, …… 3백 명을 인솔하고 선두에 서서 동대문 밖 삼십 리 되는 곳에 나아가 전군이 모이기를 기다려 일거에 서울로 공격하여 들어가기로 계획하더니, 전군이 모이는 시기가 어긋나고 일본군이 갑자기 진격해 오는지라. 여러 시간을 격렬히 사격하다가 후원군이 이르지 않아 할 수 없이 퇴진하였다. – 대한 매일 신보 –

〈 보 기 〉

ㄱ. 평민 의병장 신돌석 부대가 활약하였다.
ㄴ. 활빈당의 합류로 세력이 크게 강화되었다.
ㄷ. 13도 창의군을 결성하여 서울 진공 작전을 펼쳤다.
ㄹ. 각국 영사관에 교전 단체로 승인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⑤

* 정미의병(1907)과 서울진공작전

의병:
① 계기 : 고종의 강제 퇴위, 군대 해산
② 의병 전쟁으로 발전 : 해산 군대의 의병 가담으로 전투력 강화, 각계 각층의 참여하여 전국으로 확산하였으며 각국 영사관에 교전단체로 승인을 요구하였으나 외교권 박탈 이후의 고립된 상황이라 지원받지 못함
③ 전개:
• 서울 진공 작전(1908) : 이인영, 허위 등 유생 의병장의 주도로 13도 창의군 결성(경기도 양주 집결) → 신돌석, 홍범도 등 평민 의병장은 제외 → 일본의 우세한 화력으로 실패

㉡ 활빈당: 동학농민운동의 잔여 세력 중 1899년부터는 여러 가지 이름의 집단을 만들어 저항운동을 전개한 단체 중 남부지역에서 활약한 단체. 각지에 출몰하여 부호의 재물을 빼앗아 빈민에게 나누어주는 활빈(活貧) 활동을 벌였다.
그들은 평등의 실현, 빈부격차의 타파, 국정혁신을 목표로 하였고, 구국안민책(救國安民策)으로 ① 곡물수출을 금하고 외국상인의 출입을 막을 것, ② 영세한 행상인에 대한 징세를 폐할 것, ③ 전지(田地)를 황폐하게 하는 금광의 채굴을 엄금할 것, ④ 균전법(均田法)을 실시할 것, ⑤ 곡가를 안정시킬 것, ⑥ 악형(惡刑)을 폐하여 인정(仁政)을 시행할 것, ⑦ 농사에서 폐해를 제거할 것, ⑧ 철도부설권을 외국인에게 주지 말 것 등을 주장했다.
1905년 이후 의병(을사의병)에 흡수되었다.

41. (가)~(라)는 일제 강점기의 문학과 예술에 관한 내용이다. 이를 시기 순으로 옳게 배열한 것은? [2점]

(가) 이광수는 소설 '무정'을 발표하였다. 무정은 신문학을 총결산하고 소설 문학의 새로운 역사를 개척하는 작품이었다. 작품에 담긴 자유 연애 사상은 당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나) 일본 도쿄 유학생들이 조직한 토월회가 발족되면서 본격적인 신극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토월회는 계몽을 목표로 남녀평등, 봉건적 유교 사상의 비판, 일제에 대한 저항을 주제로 하여 국내 순회 공연을 가졌다.

(다) 일제는 문화, 예술 분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조선문인 협회, 조선 음악가 협회, 조선 연극 협회 등을 조직하여 침략 전쟁과 식민 통치의 찬양에 이용하였다.

(라) 미국과 독일에서 활동하던 안익태가 코리아 환상곡을 작곡하였다. 그는 코리아 환상곡 끝에 애국가 합창을 넣었다.

① (가)-(나)-(다)-(라) ② (가)-(나)-(라)-(다)
③ (나)-(가)-(다)-(라) ④ (나)-(라)-(가)-(다)
⑤ (라)-(가)-(나)-(다)

정답: ②

* 일제하 예술의 흐름

(가) 1910년대: 최남선, 이광수 활동, 계몽적 성격. 최초의 근대소설 이광수의 '무정'(1917) 대표작
(나) 1920년대: 동인지, 잡지 간행, 사실주의·사회주의 문학(신경향파).
토월회: 일제강점기 도쿄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신극운동 단체.(1923)
(라) 1930년대: 일제 탄압으로 위축, 순수문학 지향
코리아환상곡: 안익태(1936)
(다) 1938년(총동원령) 이후: 민족 말살 정책 강화로 문단의 암흑기. 최남선, 이광수 등 많은 문인들이 일제에 적극 협력
조선문인협회(1939): 대표적 친일문학단체

42. 다음 글의 밑줄 그은 부분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 1930년대 이후 일제의 식민 통치 지배 체제가 한층 강화되고 이를 위한 사상 탄압이 심화되었다. 일제는 식민주의 사상을 강화시키기 위해 조선사 편수회, 청구 학회, 경성 제대 조선 경제 연구소 등 일제 관학을 중심으로 식민주의적 조선 연구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일본인 주도의 조선 연구에 대응하여 조선인에 의한 조선 연구 분위기가 형성되어 '조선학' 운동이 일어났다.

〈 보 기 〉

ㄱ. 다산 서거 기념 사업 추진을 계기로 일어났다.
ㄴ. 조선 광문회는 민족 고전을 정리 간행하였다.
ㄷ. 안재홍은 민족 문화의 확립을 위한 문화 운동을 주창하였다.
ㄹ. 주시경은 국어문법을 저술하여 국문 연구 활동에 공헌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②

* 일제 강점기 하 조선학 운동

조선학운동: 1935년에는 정약용 서거 100주년을 계기로 정인보, 안재홍 등이 함께 《여유당전서》를 교열 ·간행하는 등 조선학운동을 주도하여 조선 후기 실학연구의 초석을 마련하였는데 이는 조선사편수회, 청구학회 등 일본인 주도의 식민사관 연구단체에 대항하기 위하여 우리 민족문화를 연구한 운동이다.

㉡ 조선광문회: 1910년에 설치된 광문회에서는 한국의 고전을 발굴하고 그 가치를 재인식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한국고전을 간행·보급시키는 한편, 민족의 정신적 결합을 기하며 민족문화와 사상의 기원에 관한 연구에 종사하였다. 최남선이 창설하고 박은식 등이 관계하였다

㉣ 국어문법: 1909년 주시경이 지은 문법서로서 현대문법의 종합적인 체계를 개척하여 오늘날 정서법의 자리를 굳힌 '한글맞춤법통일안'의 기본이론을 세운 저술이다
참고로 주시경은 지석영과 함께 최초의 한글연구단체인 국문연구소(1907)에서 활동하면서 한글연구의 기초를 놓았다.

43. 다음 자료와 관련된 시기의 일제 식민 정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점]

〈보 기〉

ㄱ. 치안 유지법을 제정하여 사상 탄압을 강화하였다.
ㄴ. 한국인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꿀 것을 강요하였다.
ㄷ. 신사 참배를 강요하며 한국인의 종교 활동을 탄압하였다.
ㄹ. 국가 총동원법을 제정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수탈하였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④

* 일제 민족말살기(총동원 체제): 1938년 우리민족을 전쟁으로 내몰기 위한 총동원령 발표 이후의 식민정책

1930년대에 일제는 대륙 침략을 본격화(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하면서 한반도를 대륙 침략의 병참 기지로 삼고, 이어 1940년대에는 태평양 전쟁을 도발하면서 식민지 수탈을 더욱 강화하였다. 일제는 우리 민족의 문화와 전통을 완전히 말살하려는 정책을 취하고, 인적·물적 자원의 수탈에 광분하였다.
일제는 내선 일체, 일선 동조론, 황국 신민화 등을 내세워 우리 말과 글의 사용을 금지하고, 우리 역사를 배울 수 없게 하였다. 또 황국 신민 서사 암송, 궁성 요배, 신사 참배는 물론 성씨와 이름까지 일본식으로 고쳐 쓰게 강요하였다.
특히, 일제는 강제 징용으로 노동력을 착취하였고, 징병 제도를 실시하여 수많은 조선의 젊은이들을 전장의 총알받이로 내모는 한편, 젊은 여성들을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강제 동원하여 군수 공장 등지에서 혹사시켰으며,

㉠ 치안유지법(1925): 일제가 사회주의 계열의 민족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제정, 사회주의 운동가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협조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

44. (가)~(마)는 일제 강점기의 한국사 연구와 관련된 자료이다. 이 가운데 사관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3점]

(가) 옛사람이 이르기를, 나라는 없어질 수 있으나 역사는 없어질 수 없다고 하였으니, 그것은 나라는 형체이고 역사는 정신이기 때문이다. 이제 나라의 형체는 허물어졌으나, 정신만이라도 오로지 남아 있을 수 없는 것인가.

(나) 역사란 무엇이뇨. 인류 사회의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이 시간부터 발전하며 공간부터 확대하는 심적 활동의 상태의 기록이니, …… 조선사라 하면 조선 민족의 그리 되어 온 상태의 기록이니라.

(다) 우리 조선의 역사적 발전의 전 과정은 …… 다른 문화 민족의 역사적 발전 법칙과 구별되어야 하는 독자적인 것이 아니며, 세계사적인 일원론적 역사 법칙에 의해 다른 민족과 거의 같은 궤도로 발전 과정을 거쳐 온 것이다.

(라) 조선인의 특수성을 표시하는 그 언어를 비롯하여 조선인의 과거상을 영사(映寫)하는 그 역사이며 또 조선인의 실생활을 조선말로 써내린 조선 문학 같은 것이 조선학을 구성한 중심 골자가 되어야 하겠다.

(마) '얼'은 인간 존재의 핵이며, 자성(自性)이자 불사불멸의 존재일뿐 아니라 끊임없이 활동하는 것으로서 역사의 원동력이 된다. 따라서 역사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얼'을 찾는 데 있다.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정답: ③

* 일제하 한국사 연구에 관한 사관들

(가) **박은식**: 민족주의 사관. 국혼 강조

(나) **신채호**: 민족주의 사관. 역사를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의 결과물로 파악

(다) **백남운**: 사회경제사관. 마르크스의 사적유물론에 기반. 조선사의 세계사적 보편성을 주장하여 일제의 식민사관 중 정체성론을 논박

(라) **문일평**: 민족주의 사관. '조선심' 강조. 언어가 '조선심'의 대표임을 강조

(마) **정인보**: 민족주의 사관. 조선얼 강조

상기에서 보다시피 민족주의 사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역사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을 강조하는데 반하여 사회경제사관(유물사관)은 물적 토대를 강조한다

45. 연표의 (가)~(마) 시기의 독립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1919	1920	1925	1931	1937	1945
(가)	(나)	(다)	(라)	(마)	
3·1 운동	간도 참변	미쓰야 협정	만주 사변	중·일 전쟁	8·15 광복

① (가)－대한 광복회는 만주에 무관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군자금을 모았다.
② (나)－조선 의용대는 중국군과 함께 정보 수집, 포로 심문, 후방 교란 등의 활동을 벌였다.
③ (다)－한국 광복군은 국내 진공 작전을 위한 군사 훈련을 실시하였다.
④ (라)－한국 독립군은 중국군과 연합하여 항일전에서 큰 전과를 거두었다.
⑤ (마)－만주 지역의 여러 독립군 부대는 북로 군정서군의 승리로 주력을 보존할 수 있었다.

정답: ④

* 일제 시대 시기별 무장 투쟁의 특징

(가) 1919.3~1920.12: 3.1 운동(1919)의 민족적 자신감과 함께 만주(간도)에서 항일 무장투쟁이 본격화 되어 봉오동(1920.6).청산리(1920.10)에서 독립군이 승리하는 전성기를 맞았지만, 곧 간도참변(1920.10~12)의 시련기도 맞았다.

(나) 1920.12~1925.6: 자유시 참변(1921.6), 미쓰야 협정(1925.6)의 시련기를 거치며 참의부(23).정의부(25.1).신민부(25.3)의 3부로 통합되는 시기

(다) 1925.6~1931.9: 만주에 결성된 3부가 다시 통합 운동이 벌여 남만주의 국민부(1929)와 북만주의 혁신의회(1928)로 통합된 시기

(라) 1931.9~1937.7: 일제의 만주 점령과 이로 인한 조선혁명군(남만주)과 한국독립군(북만주)이 각각 중국 의용군과 호로군(토일군)의 한중연합작전 승리가 있던 시기

(마) 1937.7~1945.8: 일제의 총동원(민족말살통치)기의 압박과 국외 중국 본토에서의 조선의용대(1938)가 결성되었고, 이후 임정 산하에 한국광복군(1940.9)과 조선독립동맹 산하의 조선의용군(1942.7)이 결성되어 활약한 시기

① 채기중의 (대한)광복단(1913)과 이시영, 서상일 등 경북 유림이 중심이 된 조선 국권 회복단(1915.1)이 통합하여 출범한 대한광복회(1915.7)는 의병 계열과 애국 계몽운동 계열의 비밀 결사들을 통합한 비밀결사체이다(총사령 박상진). 대한 광복회는 독립군을 길러 일제를 몰아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으며, 독립 의군부(1912)와는 달리 복벽주의를 극복하고 근대 국민 국가의 수립을 지향하였다. 이를 위해 군대식 조직을 갖추고 있었으며, 국내는 물론 만주에도 지부를 설치하고 독립군 양성에 노력하였다(김좌진 파견). 독립 전쟁에 필요한 군자금 마련을 위해 일제의 재산을 빼앗고 부호들에게 의연금을 걷었으며, 협조하지 않는 친일 부호를 처단하기도 하였다.

② 중국 관내의 민족연합전선인 민족 혁명당은 1937년 중·일 전쟁이 시작되자 공산주의 정당과 연합하여 조선 민족 전선 연맹을 결성하고 조선 의용대를 창설하였다(1938). 조선 의용대는 김원봉을 중심으로 하여 중국 국민당 군대와 함께 선전 활동, 일본군 포로 심문 등을 수행하였다.

③ 한국광복군은 1945년 3월부터 미국 전략 사무국(O.S.S)과 공동 작전을 합의하여 일본군 학도병 출신 광복군을 중심으로 특수부대를 양성하여 이들을 국내에 투입시키고자 하였으나(정진군), 일제가 예상보다 일찍 항복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⑤ 김좌진이 이끄는 북로군정서는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과 기타 독립군 부대와 함께 청산리 대첩을 이끌었다(1920.10).

46. (가), (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가)

(나)

그대들의 첩보를 전하는 호외 뒷장에
붓을 달리는 이 손은 형용 못할 감격에 떨린다!
아역의 하늘 아래서, 그대들의 심장 속에서 용솟음치던 피가
이천 삼백 만의 한 사람인 내 혈관에도 달리기 때문이다.

– 심훈, '오오, 조선의 남아여!' –

① (가) –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한 손기정에 관한 기사이다.
② (가) – 일장기 말소 사진을 실은 동아 일보는 무기 정간을 당하였다.
③ (가) – 손기정의 일장기 말소 사진은 조선 중앙 일보에도 실렸다.
④ (나) – 손기정, 남승룡의 마라톤 경기 소식에 감격하여 지은 시이다.
⑤ (나) – 시인 심훈은 의열단과 민족 혁명당에 가입하여 독립운동을 하였다.

정답: ⑤

* 손기정 선수의 마라톤 우승과 '일장기 말소 사건'과 심훈의 시

일장기 말소사건: 1936년 동아일보가 베를린올림픽대회 마라톤에서 우승한 손기정 선수의 사진에서 일장기를 지움으로써 일어난 일제의 민족언론 탄압사건.
이로 인해 동아일보는 창간 이래 4번째의 무기정간 처분을 하였다가 9개월 후에 복간 조치하였다. 한편 조선중앙일보도 손기정의 사진에서 일장기를 지우고 신문에 실은 뒤 총독부의 검열당국에 이 사실을 알리고 신문을 휴간하였다

⑤ 심훈은 김원봉이 주도한 무정부 좌파 계열의 의열단, 민족혁당에는 참여한 바 없고 동아일보 기자와 문인으로서 활동하며 소설 '상록수'에서 볼 수 있듯이 농촌계몽운동(브나로드 운동)과 관련있다

47. 다음 자료를 통해 추론한 당시 상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1950년대 미국의 원조는 주로 식료품과 의복, 의료품과 같은 생활 필수품과 밀가루, 면화, 설탕과 같은 소비재 산업의 원료에 집중되었다. 원조 물자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농산물이었다. 미국에서 들어온 농산물은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① 농산물 가격이 떨어져 농가 소득이 낮아졌을 것이다.
② 제분·섬유·제당 공업 등이 빠르게 성장하였을 것이다.
③ 국내의 밀이나 면화 생산은 커다란 타격을 받았을 것이다.
④ 원조 물자 배당 과정에서 정부와 유착된 재벌이 생겨났을 것이다.
⑤ 정부는 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혼식이나 분식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였을 것이다.

정답: ⑤

* 1950년대 경제 상황(원조경제와 삼백산업의 발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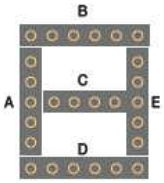
경제 원조

• 목적 : 한국의 정치적 안정 추구, 미국의 과잉 생산 농산물 처리
• 내용 : 생활 필수품과 면화, 설탕, 밀가루 등 소비재 산업의 원료에 집중(삼백 산업) → 미국의 경제 불황으로 1958년부터 원조 급감, 유상 차관으로 전환
• 긍정적 영향 : 궁핍한 시기 식량 문제 해결에 기여
• 밀가루, 면화 등의 대량 수입으로 농업 기반 파괴

삼백 산업 : '삼백'이란 밀가루, 면화, 설탕 →, 이를 원료로 한 제분업, 방적업, 제당 공업을 삼백 산업이라 함

① 값싼 미국산 과잉 농산물 유입으로 일어났다
② 삼백산업 발달
③ 밀가루, 면화 등의 대량 수입으로 농업 기반 파괴
④ 이 산업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정부로부터 불하 받은 귀속재산(일제시대 시설)을 기반으로 하였기에 정경유착이 심하였다.
⑤ 국가에 의한 분.혼식 장려는 1967년 박정희 정권 때의 일로 10여년간 지속되었다.

48. 다음 전광판은 오른쪽 '조건'과 같이 작동한다. 이 전광판에 새겨지는 글자 모양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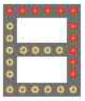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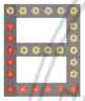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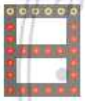
[조 건]

〈보기〉 A~E의 설명이

- 맞으면 → 불이 들어온다.
- 틀리면 →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

〈 보 기 〉

A. 여운형은 미군정이 지원한 좌우 합작 위원회에 참여하였다.
B. 김구는 임시 정부 법통을 내세우면서 반탁 운동을 주도하였다.
C. 이승만의 단독 정부 수립 구상은 김규식, 백남운 등 중도파의 지지를 받았다.
D. 송진우, 김성수 등이 중심이 된 한국 민주당은 미군정의 지원으로 성장하였다.
E. 좌익 세력은 독립 촉성 중앙 협의회에 참여하였으나 친일파 처리 문제로 탈퇴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정답: ④

* 해방 직후 국내 정치 상황

여운형: 국내 중도좌파 세력의 대표자로서 해방 직전 건국동맹을 이끌고 해방 직후 미군정이 들어오기 전까지 건국준비위원회를 이끌었다. 이후 1946~1947년 중도 우파세력인 김규식과 더불어 미군정이 지원하는 좌우합작위원회에 참여하였으나 그의 암살로 실패하였다.

김구: 해방 직후 우파인 한국독립당을 이끌며 반탁운동을 이끌었으나 같은 우파인 이승만의 단정론에 반대하여 통일정부론을 주장하며 남북협상론을 주도하였으나 암살되었다

김규식, 백남운: 김규식은 중도 우파계열로서 당연히 극단적 반공주의자이자 단정론자인 이승만과는 완전 다른 노선이고 좌우합작운동과 남북협상에 참여하였으며, 백남운은 북한 정권 수립에 참여하였다

송진우, 김성수: 구 일제하 지주.자본가 세력 출신의 우파 노선이며 미군정에 저극 참여하였으며 이승만의 단정론에 지지를 보냈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 출범 후 정권에서 소외되어 민주당의 야당의 길을 가게 됨

독립촉성중앙협의회: 8·15광복 직후 우후죽순처럼 출현한 정당과 단체들의 백가쟁명 속에서 정국이 혼미할 때 한국민주당·국민당·건국동맹·조선공산당을 비롯한 당시 산재되어 있던 각 정당 및 사회·문화 등 200여 개 단체 대표가 참여한 정치단체이다. 진정한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동투쟁·공동노선을 취할 것을 결의하고, 이승만을 총재로 추대하였다. 그러나 모스크바 삼국외상회의의 신탁통치 결정 이후 조선공산당 등의 좌파계열이 이탈하였다.

49.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역사 신문을 만들고자 한다. 기사 제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가) 현직 대통령으로서, 임기가 2차로만 제한되어서는, 그 어느 대통령도 소신 있는 국정을 다할 수 없다는 것이 나의 의견이다. …… 헌법에 주어진 기회를 다하고 못하고는 차치하고 적어도 3차에 걸친 임기 만큼은 그 기회를 주는 것이 대통령 중심제의 헌정에 있어서 절실히 요청되며, 특히 발전도상에 있는 우리나라 형편으로서는 더욱 절실한 것으로 본다.
>
> (나) 이제 일대 개혁의 불가피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정치 현실을 직시할 때 나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 같은 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 이에 나는 평화 통일이라는 민족의 염원을 구현하기 위하여 …… 약 2개월간의 헌법 일부 조항의 효력을 중지시키는 비상 조치를 국민 앞에 선포하는 바입니다.

① 사건 파일 : 6월 민주 항쟁
② 집중 분석 : 7·4 남북 공동 성명
③ 시민 포럼 : 와우 아파트 붕괴 사건
④ 현장 보고 : 서울－부산 고속 국도 개통
⑤ 경제 시평 : 제3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정답: ①

* 대한민국 헌법 변천사

1969년 3선 개헌과 1972년 10월 유신헌법 사이의 사건을 물어봄

① 6월 민주항쟁(1987): 전두환 정권의 대통령 간선제 고수를 타파하고 직선제를 쟁취한 민주항쟁
② 7.4 남북공동성명(1972): 남북 간의 첫 통일에 관한 합의 문서. 그러나 이후 남북한은 독재의 길로 들어섬
③ 와우 아파트 붕괴 사건(1970년)
④ 경부고속국도 개통(1970)
⑤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72~1977)

50. 일제 강점기에 전개된 (가)~(라)의 민족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① (가)－부녀자들은 비녀와 가락지까지 내어 모금에 동참하였다.
② (나)－봉건적 굴레로부터의 여성 해방과 일제 침략으로부터의 해방을 목표로 하였다.
③ (다)－민족 차별에 반발한 광주 지역 학생들의 시위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④ (라)－농촌 계몽 운동의 일환으로 한글 보급을 통한 문맹 퇴치 운동을 전개하였다.
⑤ (가)－(나)－(다)－(라)의 순서로 전개되었다.

정답: ①

* 일제하 대규모 민족운동

(가) 민립대학설립운동(1922)
(나) 여성운동(근우회)(1927)
(다) 광주학생항일운동(1929)
(라) 농촌계몽운동(브나로드운동)(1931)

① 부녀자들의 비녀 가락지까지 모금된 운동은 국채보상운동이다(1907)

② : 여성계의 민족 유일당, 신간회의 자매 단체 → 여성의 단결, 남녀 평등, 여성 교육 확대, 여성 노동자 권익 옹호, 새 생활 개선 운동 등 전개

③ 광주 학생 항일 운동:
배경: 일제의 민족 차별과 식민지 교육
• 학생 운동의 조직화6·10 만세 운동 이후 학생들의 항일 의식 고조 → 각 학교에 독서회와 비밀 결사 조직 → 동맹 휴학 투쟁 전개
• 신간회의 활동 :학생들의 민족 의식 고양

④ 문맹 퇴치 운동:
• 브 나로드 운동(동아 일보),
문자 보급 운동(조선 일보) 전개
• 야학, 강습소 설립 → 한글 보급과 더불어 미신 타파, 구습 제거 등의 농촌 계몽 운동 전개,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민족 의식 고취 → 일제의 금지(1935)